

# 『杜詩諺解』註釋文의 文法的 考察

南 豐 鉉\*

I. 序 論

II. 叙 法

III. 引用法

IV. “一이라”系와 “一하다”系

V. 主題文

VI. 格助詞

VII. 漢語의 虛辭와 口訣

VIII. 結 論

## I. 序 論

杜詩諺解의 體制는 杜甫의 原詩, 註釋文, 諺解文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三者 中에서 註釋文에 대한 語學的인 問題를 考究하여 이를 記述하는 것이 本稿의 目的이다. 이는 漢文이 國語에 미치는 影響의 한 過程을 이 註釋文을 通하여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杜詩 註釋文의 表現形式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胡星은 旄頭也 | 라 李은 光芒이 四出也 | 라 網疎는 比法度廢弛니라 此下는 言綠山之亂하다(20:32a).

2) 고지 사르미 므수물 어즈럽게 할식 無賴라 하다(15:16)

3) 李陵曰 士氣少衰하니 軍中에 었데 겨지비 업스리오 하고 어더 주기다(8:68)

1)은 漢文에 懸吐한 構文으로서 이 註釋文에서 가장 많이 쓰인 것이다. 여기에 쓰인 漢文은 懸吐를 消去하여도 그것이 곧 漢語의 構文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嚴格한 意味에서는 漢文이라고 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이것은 漢·中 兩言語가 相互 干涉한 結果라 할 것이다. 本稿에서 考察의 主對象은 이 構文이 된다. 2)는 國語로써 註釋한 것인데 이 構文은 흔히 使用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1)을 考察하기 위한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3)은 1)의 漢文 構文과 2)의 國語 構文이 섞여서 쓰인 것이다. 이것도 많이 使用된 것은 아니나 當時文人들의 言語生活의 一面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아 1)을 考察하기 위한 參考資料가 될 것이다.

杜詩의 註釋文이 이와 같이 세 가지 表現形式을 갖게 된데는 다음과 같은 緣由에서 온 것이라

\* 檀國大學校 文理科大學 助教授, 國語學

고 생각된다.

杜諺는本來 註釋事業이 먼저 計劃되어 進行되었고 諺解는 二次的으로 計劃되어 完遂된 것임은 周知의 事實이다. 杜諺의 體制가 杜甫의 原詩, 註釋文, 諺解文의 順으로 된 것은 當時 編纂者들이 이들에게 賦與한 重要度の 順이 된다.<sup>(1)</sup> 即 編纂者들은 杜甫의 原詩에 一次的인 重要性을 두고 註釋은 勿論 諺解까지도 이를 理解하기 위한 手段으로써 添附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이 順序는 그것이 計劃되고 完成된 時間的인 順序도 되는 것이다.

杜諺의 註釋文은 世宗實錄 二十五年 癸亥 四月條에

命購杜詩諸家註于中外 時令集賢殿 參校杜詩註釋 會粹爲一 故求購之(卷百15)

라 하였으니, 적어도 世宗 25年 4月에는 그 註釋事業이 着手된 것을 알겠는데 이 때는 訓民正音 創制 以前이니 諺解에 대한 計劃은 있을 수가 없고 註釋文도 初期에는 純漢文으로 作成되기 始作했을 것이다. 또 “參校杜詩註釋 會粹爲一”이라고 한 것은 曹偉의 杜諺 序文에

杜詩諸家之註詳矣 然會箋繁而失之謬……衆說紛紜 互相抵牾 不可不研覈 而一爾(重刊杜詩諺解卷一)

라고 한 “研覈 而一爾”에 이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註釋文의 作成態度가 이미 世宗朝에 決定되어 杜諺 刊行時까지 一貫하여 내려왔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註釋文은 漢文으로 作成되어 내려오다가 後에 諺解計劃이 樹立되어 進行되어 나오면서 漢文註釋에 대한 修正 補充과 아울러 正音으로 懸吐도 하게 되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이 修正, 補充, 懸吐하는 過程에서 2)나 3)과 같은 註釋文도 나오게 되고 懸吐를 消去하면 漢文으로 復歸할 수 없는 註釋文도 나오게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問題는 이 註釋文에 담겨진 註釋者의 言語意識, 即 話者의 言語意識을 究明함에 重要한 것이지만 그 經緯를 더 以上 밝히기가 어렵다. 要는 이 註釋文이 하나의 完全한 意思疎通의 道具로 使用되고 있다는 點이 重要하다. 當時의 知識人들은 國語 以外에 또 하나의 言語意識 即, 國語의 干涉을 받은 漢文의 言語意識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國語와 漢語의 間隙을 좁힘으로써 漢語가 國語에 미치는 影響의 過程을 보여 준다는 事實이 重要하다.<sup>(2)</sup>

15 世紀의 諺解는 大概가 漢文의 直譯이고 이것은 懸吐를 거의 그대로 反映하고 있다. 오히려 文獻에 따라서는 口訣이 諺解를 前提로 하여 懸吐된 感도 있다. 諺解를 前提로 한 懸吐라면 口訣의 保守性에도 不拘하고 現實言語를 反映했을 可能性이 濃厚하다. 그러나 杜諺의 懸吐된

(1) 李丙曉教授는 “杜詩諺解에 集註分類杜詩와는 달리 目錄이 없는 緣由는 오로지 諺解이라서 本是 原集과 對讀하기 爲한 體裁”이라고 하였고 또 “杜諺의 出刊은 분명 ‘疑者釋 望者通’의 快事이었다. 그러나 紀記에 보면 한갓 訓學 書로 다루었지 換骨을 위한 祖述書로 撰기는 操心은 적다”고 하였다. 이와같은 態度가 그 排列順序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한다.

cf. 李丙曉, 「杜甫詩研究」, 東岳語文論集, 第七集(東岳語文學會), 1971, p.50 및 p.64

(2) cf. 拙稿, 「“가다가” 攷」, 語學研究 Ⅶ卷 1號, 1971, pp.11—22 및 「十五世紀 文獻에 나타난 中國語의 文法的 影響과 呼應關係 形成에 대한 考察」, 漢陽大學校論文集 第5輯, 1971, pp.53—77

漢文은 當時人들의 創作文일 뿐더러 諺解를 前提로 한 懸吐가 아니라는 點에서도 意義가 있다. 이것은 보다더 保守性을 띠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懸吐는 時代와 個人에 따라 變異가 있는 것이어서 위로는 薛聰의 制定說이 있고 가까이는 鄭夢周, 權近이 制定했다는 記錄이 있다. 特히 世祖는 “鄭夢周와 權近의 口訣에 誤謬가 있어 이것이 잘못 訛傳됨을 嘆하고 老臣과 宿儒들에게 四書五經의 吐를 古今을 考證하여 參定하라고 하였고 이들이 또 差異가 있으면 親히 廢裁를 加했다 하니 이것은 이 때의 儒臣들 사이에도 口訣에 상당한 差異가 있었음을 말해 줌과 아울러 世祖가 前代의 口訣을 大幅的으로 修正했음을 말해 주는 記錄이다.”<sup>(3)</sup> 杜諺의 懸吐는 15世紀 佛經類의 懸吐와 相當한 差가 있다.<sup>(4)</sup> 이것은 杜諺의 懸吐가 儒家의 懸吐와 系統을 같이 하고, 佛經類의 것이 世祖에 依하여 大幅的인 修正이 加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든 몇 가지 點에서 杜諺 註釋文을 重視하고 이의 記述에 들어 간다. 杜諺은 纂註分類杜詩를 底本으로 하였으므로 註釋文에 있어서도 內容은 勿論, 構文에서도 一致 또는 類似한 것이 많다. 杜諺에서 構文上 問題가 되는 것을 考究함에는 甲辰字本(1482) 纂註分類杜詩(卷15~25)를 參照하였고 杜諺註釋文의 資料는 影印된 初刊本(卷6.7.8.15.16.20.21.22.23.24.25)에서 蒐集하였다.

## II. 叙 法

註釋文은 註釋者가 原詩에 關聯된 어떤 難解事項을 讀者들에게 解說하는 글이다. 따라서 註釋文은 原詩에 有關한 事項이라는 “制約된 話題”를 “解說한다”는 制約된 表現形式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自由로운 發話가 되지 못하고 叙法에 있어서도 制約이 있다.

이제 文을 끝맺는 口訣의 終結形을 中心으로 그 叙法을 考察하면 다음과 같은 네 種類가 나온다.

- ① a) 土囊은 谷口 } 라(6:2)
- b) 朱炎赫은 指言暑熱하다(7:23)
- ② 言 白은 莫怪天子之恩이 隔絶하다(16:7)
- ③ 越王句踐이……嘗膽 曰 汝忘會稽之恥耶아(20:52)
- ④ 花卿은 必善謳者 } 로다(16:52)

①은 說明法이다. 이것은 註釋者가 直接 讀者에게 註釋의 對象을 解說할 때 使用하는 叙法으로 註釋文에서 가장 많이 쓰여 註釋文의 大部分은 이 叙法으로 나타난다. 이 說明法은 口訣의

(3) cf. 崔 鉉培, 『고전 한글학』, 정음사, 1961, pp.97---100 및 pp.104---105

(4) 拙稿, 「杜詩諺解 註釋文의 “一로”에 대한 考察」, 檀國大學校 論文集 第6輯, 1972, pp.7---30

樣式으로 보아 a)의 “—이라”系와 b)의 “—하다”系로 大分된다.

②는 命令法이다. 杜諺 註釋文에서 註釋者가 讀者에게 直接 한 命令法은 發見되지 않는다.

②의 例에서 命令의 主體는 原作者 杜甫이고 命令을 받는 사람은 李白이다. 註釋者는 杜甫의 命令을 引用한 것으로 이 命令法은 引用文 속에 나타나야 할 命令法이다. ②의 文에서 “하라”의 主語는 “白”이고 “言白은…”의 “言”에 該當하는 口訣 “하다”는 省略되었다.

王子敬이 謂盜 曰 青氈은 我家舊物이니 可特置之하라 하다(20:8)

에서 引用法의 助動詞 “하다”가 註釋者의 叙法을 나타내고 있다. 杜諺 註釋文에서는 이러한 引用文 속의 命令法의 例도 極히 드물게 나타난다.

③은 疑問法이다. 이 例도 句踐이 自問한 것으로 註釋者와 讀者間의 關係에서 보면 引用이다. 疑問法에서도 註釋者가 讀者에게 直接 提示한 疑問法은 發見되지 않는다. 杜諺 註釋文에 쓰인 疑問法 終結語尾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齊桓公이 入山하야 問父老 曰 此何谷고(8:65)

言 鄭李之聲華] 可以夾輔王室이니 何日高步上天乎오(8:65)

言 幽閑之人이 理當賞妍이어니 何必矜誇] 리오(6:48)

이들은 疑問詞와 呼應하는 “—고, —오, —이리오”가 쓰인 例들이다.<sup>(5)</sup> 이 語尾들이 疑問詞 없이 쓰인 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言 美人이 已爲黃土하니 況其平日假用塗面之粉黛子] 쯔녀(6:1)

龜蒙二山이 去東岳近호되 尙不可見하니 況故鄉乎여(25:6)

書에 若考] 作室이어든 厥子] 乃弗肯堂이온 矧肯構아(16:9)

이들은 反語的인 疑問이다. “—쯔녀”, “—여”는 “況”에 대해서 呼應한 것이다. “況”과 同一機能을 가진 “矧”에 대해서는 “—아”가 쓰였다. 이 “—아”는 他 語辭와 特別한 呼應이 없이 쓰이는 疑問形語尾이다. 杜諺 註釋文에선 疑問辭가 없이 쓰이는 疑問法은 極히 드물게 나타난다.

④는 感嘆法이다. 이 感嘆法은 本來 先語末語尾로 表現되는 意圖法의 한 갈래다. 感嘆 亦是 註釋者가 直接 讀者에게 말한 것은 發見되지 않는다. “花卿은 必善謳者] 로다”는 原作者 杜甫가 表現한 感嘆을 나타낸 것이다. 이 註釋文이 解說의 對象으로 한 原詩句는 “人間能得幾回聞”으로서 形式上 疑問法으로 表現했으나 原作者의 眞意는 “花卿이 善謳者”임을 感嘆한 것이다. 註釋者가 여기서 引用의 形式을 取하지 않고 原作者의 意圖를 表現한 것이 “花卿은 必善謳者] 로다”로 된 것이다. ④의 例와 같이 引用의 標識가 없이 原作者의 感嘆을 表現한 것은

此] 別有一時事] 로다(15:27)

下句는 用 漢人 張騫의 乘槎事하니 侍御] 必嘗使吐蕃이로다(20:27)

등이 있다. 杜諺 註釋文에 나타난 感歎法 終結語尾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5) cf. 安 秉禧, 「後期中世國語의 疑問法에 對하여」, 건국대학교 학술지 제 6집, 1965, pp. 59—81

古詩에 美人이 贈我錦繡段하네 何以報之오 靑玉案이로다(8:49)

言 白은 莫怪天子之恩이 隔絶하라 欲與白으로 上天而問之也 ]로라(16:7)

此는 言 我 ] 常怪將軍의 懶於朝參하더니 乃耽野趣故也 ]랏다(15:12)

劉定公이 曰 微禹 ]면 吾其魚乎 ]더 하네(6:38)

이 “—이로다” “—이로라” “—이랏다” “—인더” 중에서 “—이로다”가 자주 쓰이고 其他는 極히 드물게 나타난다. “—이로라”는 한 例가 發見되는데 誤記가 아니라 그대로의 機能을 가진 것이다.<sup>(6)</sup>

以上 杜諺 註釋文에서 文의 終結形으로 나타나는 叙法은 說明, 命令, 疑問, 感嘆의 네 가지가 나타난다. 이 중 註釋者가 讀者에 對하여 直接的으로 나타내는 叙法은 說明法이다. 其他 命令, 疑問, 感嘆의 叙法은 原作者 杜甫의 叙法이거나 註釋文 중에 登場하는 他 人物의 叙法을 나타낸 것만이 發見되었다. 이밖에 中世國語에서 나타나는 “共同, 許諾, 約束” 등의 叙法은<sup>(7)</sup> 發見되지 않는다.

說明法을 除外한 各 叙法의 語尾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이 制限된 數만이 나타난다.

命令法 ; 하라

疑問法 ; —고(오), —리오, —아, —느니, —여

感嘆法 ; —이로다, —이로라, —이랏다, —인더

### Ⅲ. 引用法

說明法 中에는 註釋者가 他人의 말을 빌려서 解說을 代身하는 引用法이 있다. 註釋에선 特히 引用이 많은데 이 引用法은 다음과 같은 構文을 갖추는 것이 原則이다.

河圖括地象① 曰② 地有三百六十軸이라③ 하다④(6:27)

①은 引用的 典據이고 ②는 引用을 表示하는 漢語의 引用動詞이다. ③은 引用的 實內容을 나타내는 引用句로서 國語의 終結形이 句末에 懸吐되는 것이 原則이다. ④는 國語의 引用動詞이다. 이 引用動詞은 ②에 漢語의 引用動詞가 쓰이면 그 引用動詞의 動詞性을 代身하는 機能을 가졌고 한편 ③의 終結語尾와 呼應하여 國語 引用法의 標識가 되기도 한다.

①의 典據가 사람일 때는 그 典據는 主格으로 나타난다.

王子敬이 謂盜曰 靑氈은 我家舊物이니 可特置之하라 하다(前出)

王孫賈의 母 ] 謂賈曰 汝暮出而不還則吾 ] 倚閭而望이라 하네……(8:19)

(6) 李崇寧博士는 “—로라”에 대해서 “—노라”와 같이 行動이나 또는 狀態가 지금 시작되어 가까운 未來로 持續됨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cf., 『中世國語文法』, 乙酉文化社, 1961, p. 183

(7) 安秉禧, 『韓國語發達史 中, 文法史』, 『韓國文化史大系 V, 言語·文學史』, 高天民族文化研究所, 1967, p. 217 以下

典據가 文獻일 때는 處格으로 나타난다.

春秋에 隕石于宋이라 한다(15:33)

嵇康詩에 曰 昔慚柳下 | 오 今愧孫登이라 하니……(8:10)

②의 引用動詞는 “曰” 以外에 “謂”, “云” 등이 쓰인다.

魏文帝與王粲書 云 徐陳應劉 | 一時俱逝 | 라 하니(8:14)

須溪 云 爛熳은 似是汗漫이라 하니(8:20)

漢人張芝 | 善草書 | 어든 謂之草聖이라 하니라(15:41)

그러나 이 漢語의 引用動詞는

家語에 孔子 | 累累若喪家狗 | 라 하니(8:5)

에서와 같이 省略되는 것이 一般의이다. (中間點은 省略의 表示. 以下同.)

③의 引用句에서 그 引用句의 發話者 即 被引用者의 叙法이 나타남은 앞에서 보아 온 바다. 그러나 大體로는 “—이라”가 쓰인다. 引用文 中の “하라, —이리오(20:34), —이로다” 등이 被引用者의 叙法을 分明히 들어냄에 反하여 “—이라”는 被引用者나 引用者(註釋者) 중 그 어느 便의 叙法이라 斷定하기 어렵다. 叙法上으로 中和된 것이라 하겠다.

④의 引用動詞로는 “하다”와 “하니라”가 쓰인다. 이것은 註釋者의 叙法을 나타낸다.

古詩에 呼童烹鯉魚호니 中有尺素書 | 로다 하다(20:8)

李衡이 種橘曰 吾有千頭木奴 | 라 하다(16:71)

曲禮에 主佩垂則臣佩委라 하니라(6:6)

斛律光을 時號 射鵰手 | 라 하니라(20:53)

이 引用動詞는 흔히 省略된다.

詩에 我送舅氏하야 曰 至渭陽하라(8:63)

劉琨 曰 常恐祖生의 先我著鞭하노라(20:8)

杜諺에선 “하라, 하노라”가 被引用者의 叙法으로 쓰였을 때 國語의 引用動詞가 그 뒤에 쓰인 例가 發見되지 않는다. 다음의

東方朔이 曰 三多에 文史 | 足用이니라(7:31)

에서 “—이니라”는 “—이라 하니라”로 풀이되는 것이다. 이 “…足用이니라”의 “—니라”는 註釋者의 叙法을 나타내는 것이고 被引用者인 “東方朔”의 叙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니라”는 “—이라 하니라”의 “—니라”와 같은 것이 된다. “…足用이니라”의 “—이니라”가 “—이라 하니라”로 풀이될 때 “—이라 하니라”가 “—이니라”로 縮約되는 것은 音韻論의으로는 說明이 되지 않는다.

永嘉記에 青田에 有雙白鶴하니라(20:7)

에서도 “ㅎ니라”는 “—이라 ㅎ니라”로 풀이될 수 있지만 이것을 單純히 “—이라”가 省略된 것이라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有雙白鶴ㅎ니라”의 “ㅎ—”는 引用句의 敘述語인 “有”의 動詞性을 代身하는 것으로 把握되고 “—니라”는 註釋者의 叙法을 나타내는 것으로 把握되기 때문이다.

莊子에 丈椿이 以八千歲로 爲春秋ㅎ느니라(20:25)

에서는 “ㅎ—”까지가 引用句의 主語의 行爲에 대응하는 것이고 “—느니라”는 時相과 註釋者의 叙法을 나타내는 것이다.<sup>(8)</sup> 그런데 杜諺의 懸吐에선 引用法으로서 “...ㅎ느다 ㅎ니라”의 쓰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은 “...ㅎ느다 ㅎ니라”가 省略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文末에서 引用法이 表現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杜諺 註釋文에서는 原作者 杜甫의 말이 자주 引用되나 文末에서 一切 引用法의 形式이 쓰이지 않는다.

此는 言 長松이 雖遭霹靂ㅎ나 猶得再生ㅎ느니 賢士이 一失은 又何足傷이리오(8:53)

甫ㅣ 自註 西居ㅣ 近市易ㅎ니라(7:16)

에서 “—이리오 ㅎ다”나 “—이라 ㅎ니라”와 같은 引用法은 一切 쓰이지 않는다. 特히 杜諺 註釋文에서는 “此는 言...”의 形式이 자주 쓰이는데 이 “言”에 對應하는 國語式 註釋文을 보면

이 는 나 는 相如ㅣ 뜰 곧더 몰호니 그되 는 傳說 곧도다 니를 시라(15:35)

이 는 지괴 찰떡 업스니라 ㅎ는 마리라(15:37)

이 는 그를 잘 지소미 속절 업슬식 山林에 歸隱호리라 ㅎ다(15:8)

等으로 나타나서 引用法을 쓰고 있다. 勿論

祿山之亂에 鄭虔을 여회엿다가 다시 보고 니른는 마리라(15:47)

와 같이 모두 引用法으로만 表示될 性質의 것은 아니지만 懸吐式 註釋文에서 原作者의 말을 引用할 때는 一切 引用法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러한 事實들은 註釋文의 懸吐가 國語로 翻譯될 때 必要로 하는 모든 虛辭를 빠짐 없이 使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것은 懸吐가 漢文文脈을 理解하도록 誘導하는 구실을 하는 것이지 漢文의 文法을 모두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말해 준다. 口訣은 漢文과 國語의 間隙을 좁히는 役割을 하고 있지만 漢文을 解讀하기 위해서 必要로 하는 國語의 모든 虛辭를 빠짐없이 懸吐하는 것은 아니다.

叙法上으로 볼 때 引用文에서는 被引用者의 叙法表現이나 引用者(註釋者)의 叙法表現이 省略되는 事實은 認確했으나 그 省略이 恣意的인 것인지 어떤 條件을 가진 것인지는 未詳이다.

(8) “映人이 春水ㅣ 생이든 行船ㅎ느니라(20:46), 唐入宮中에 種花柳ㅎ느니라(6:15)”에서도 “ㅎ느니라, ㅎ느니라”는 “ㅎ”까지가 文中의 主體者의 行爲에 連結되고 나머지는 時相과 註釋者의 叙法을 나타낸다.

## IV. “—이라”系와 “—하다”系

杜諺 註釋文의 終結形에서 說明法은 “—이라”系와 “—하다”系로 大分된다. 註釋文에 나타나는 이 系列의 終結形을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 |         |       |
|---------|-------|
| ① —이라   | —하다   |
| ② —이니라  | —하니라  |
| ③ —이러라  | —하더라  |
| ④ —이러니라 | —하더니라 |
| ⑤ —이리라  |       |
| ⑥       | —하느니라 |
| ⑦       | —호라   |
| ⑧       | —하노라  |

以上이 敘述法에 쓰인 終結形의 全部이다. 當時 國語의 敘述法에 쓰이면 終結形에 比하면 이것은 制限된 數이다. 이 중에서 頻度上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이라”와 “—이니라”이고 그 다음이 “—하다”와 “—하니라”이다. 그 밖의 終結形은 時相과 意圖法을 나타내는 先語末語尾 “—리—”, “—더—”, “—느—”와 “—오/우—”가 挿入된 形態로서 그 使用 頻度는 比較的 적다. 그 用法은 國語文法에 準하고 있으므로 個別的인 記述은 여기서 略한다. “—이라”와 “—하다”는 時相이나 叙法(意圖法)에 있어서 中和된 것이고 “—이니라”와 “—하니라”는 事實을 規定하려는 意圖가 들어 있는 것이다. 即 基本形과 規定法의 差異이다.<sup>(9)</sup> 이러한 時相이나 叙法의 問題는 略하고 여기서는 懸懸에서 “—이라”系와 “—하다”系로 나뉘는 環境과 理由에 대해서 考究해 보기로 한다.

## 1. “—이라”系

國語에서 “—이라”는 體言 敘述語에 連結되어 文을 終結하는 形式이다. 註釋文에서도 이에 準하는 用例는 흔히 쓰이고 있다.

- ① 先은 去聲이라 (7:8)      赤縣은 京邑屬縣이라 (16:29)  
 又는 刺魚器라 (16:63)

이 例들은 敘述句의 中心語가 모두 名詞이고 여기에 “—이라”가 連結된 것이어서 國語文法의 立場에서 보더라도 無理가 없다. 이것은 같은 註釋文에 쓰인 國語表現인

(9) 李崇寧, *op. cit.*, pp. 175—182

驕陽은 너를 마못 陽이라 (15:2)

② 碧海と 神仙所在也 (7:12)

와 같이 “-이라”가 漢語의 動詞 “在, 畫” 다음에 連結된 쓰임도 있으나 “神仙所在”나 “額傍所畫”는 일찍부터 名詞로 把握해 오던 “所”가 中心語로 쓰인 것이어서 口訣의 用法에서 보면 “-이라”의 쓰임에 無理가 없다. 卽 “-이라”는 動詞 “在, 畫”에 連結된 것이 아니라 名詞 叙述句에 連結된 것이다.

에서 “一이라”는 名詞 “類” 다음에 쓰였으나 “言綠山之類”는 動詞句로 그 中心語는 動詞 “言”이다. 따라서 中心語 “言”을 基準으로 懸吐한다면 “一하다”가 쓰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예는 中心語가 動詞 “言”이고 그에 從屬되는 句는 名詞句 “綠山之類”이지만 中心語 “言”이 쓰이고 動詞句가 그 從屬句로 쓰인 경우에도 “一이라”가 쓰인다.

에서 “無障故로 可以遠望”은 動詞句로 “言”에 從屬되고 그 最終 單語 “望”은 動詞임에도 不拘하고 名詞에 連結되는 敘述語尾 “-이라”가 쓰였다. 이것은 漢文語順上의 最終 單語의 品詞性에 따라 “-이라”나 “-하다”가 區別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⑤ 此と甫 | 自叙 | 라 (7:32)

에서 漢語의 最終 單語 “叙, 謂”는 動詞이고 叙述句의 中心語임에도 “—이라”가 쓰인 것이다.

以上에서 보면 ①②는 “-이라”가 名詞句(以下 NP로 表示)를 敘述語로 하는 경우에 쓰인 것  
 이고 ③④⑤는 動詞句(以下 動詞句는 VP, 形容詞句는 AP로 表示)를 敘述語로 하는 경우에 쓰  
 인 것이다.

杜謬 註釋文에서는 漢語의 語氣詞 “也” 다음에는 반드시 “一이라”系가 쓰인다. “一하다”系가 쓰인 例는 一切 發見되지 않는다.

間諜은 軍中反間者也ㅣ라 (7:27)

는 “NP는 NP也”라”에서 使用된 것이고

點朝班은 想省中諸公之朝也 | 라 (6:9)

此言未能歸隱滄洲而未見招用於世也」라 (20:47)

는 “NP는 VP也”라”에서 사용된 것이며

坎壤은 不平也 ] 라 (16:27)

妙絶은 筆跡이 巧妙冠絶也 ] 라 (6:27)

는 “NP는 AP也 ] 라”에서 쓰인 것이다. 그러나 他 文獻에서는 “VP也” 다음에

此는 明觀根逗教호사 不拂其性故로 物得自遂也호시니라 (法華 3:27)

辯非外也호시니라 (楞嚴 1:55)

看看 黃頭老 ] 現也호시니라 (金三 4:61)

에서와 같이 “-호다”系가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文獻에서도 “VP也” 다음에 “-이라”系가 쓰이는 例는 흔히 나온다.

因召而集也 ] 라 (法華 3:18)

揀非思食識食等也 ] 라 (楞嚴 1:54)

不可得而混也 ] 니라 (金三 4:39)

이들에 對한 諺解는 各各

보르샤물 因호야 모드니라 (法華 3:18)

思食과 識食둘히 아닌들 고틀니라 (楞 1:54)

어루 시러 섰디 몰호느니라 (金三, 4:40)

와 같다. 이러한 事實들은 漢文의 “VP”에 對하여 國語로서는 “-호다”系로 諺解되면서도 口訣에서는 “-이라”系를 使用하는 傾向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杜諺註釋文에서 “也” 다음에 반드시 “-이라”系 語尾가 오는 것은 이 文獻의 特異한 個別性, 即 杜諺註釋文에서는 他 文獻보다 어떤 統一性을 期하려고 한 歷歷한 痕跡이 있는데<sup>(10)</sup> 이에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되기도 하나, 過去부터 “也”를 國語의 “-이라”系로 把握했던 慣習을 反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2. “-호다”系

“-이라”系가 “NP(也)이라”, “VP(也)이라”, “AP(也)이라”에 모두 쓰이나 “-호다”系는 “VP호다”와 “AP호다”에만 쓰인다.

此上은 言 武后朝之事호다 (20:20)

이것은 “-이라”系의 例文 ③에 比較되는 것으로 中心語가 같은 “言”이고 그에 從屬되는 句가 名詞인데 “-호다”가 쓰인 것이다.

此는 甫 ] 自述호다 (20:46)

龐德公이……隱門不返호니 甫 ] 自比호다 (20:37)

此首는 專爲長安喪亂而作호니라 (6:7)

이들은 “-이라”系의 例文 ⑤에 比較되는 것이다. 文構造가 同一하면서도 여기서는 “-호다”

(10) 拙稿, *op.cit.*, p. 10

系가 쓰였다.

“—하다”系는 引用文의 引用動詞로 쓰이고 있다. 이것은 “—이라”系가 쓰일 수 없는 “—하다”系만의 領域이다.

李衡이 種橘 曰 吾有千頭木奴 | 라 하다 (16:71)

詩에 蕭蕭馬鳴이라 하다 (7:31)

王子敬이 謂盜曰 青氈은 我家舊物이니 可特置之하라 하다 (20:8)

古詩에 呼童烹鯉魚호니 中有尺素書로다 하다 (20:8)

이 引用文에서는 “曰……하다”의 “VP하다”가 比較的 자주 쓰이는 셈이다.

漢語의 形容詞句에 “—하다”系가 붙는 例는 흔하지는 않으나 다음 例들이 보인다.

寓는 與宇로 同하다(前出)      金帶는 吐綏雞니 其肉이 脆美하니라 (16:72)

草堂이 近翠微寺하니라 (7:32)      百舌은 鳥名이니 春鳴하고 至夏無聲하느니라 (7:14)

陳平이 以席爲門하니 門多長者車轍하느니라 (8:65)

以上에서 “—하다”系의 쓰임을 보았거니와 이들은 引用動詞의 경우를 除하면 “—이라”系와 文의 構造가 一致하여 漢語의 文構造로서는 이 兩系列의 差異를 說明할 수 없음을 말하여 준다.

杜詩 註釋文에서는 註釋의 特質上 慣用的으로 자주 쓰이는 用言이 있다. 이 用言들은 大體로 原作者가 나타내려고 하는 意圖를 說明하는 것으로 敘述句의 中心語가 된다. 이들을 中心으로 兩系列을 比較하면 이들이 文의 構造上 一致하고 있음이 더욱 顯著하게 들어난다.

言; 此下로 至飛揚은 言 畫工精巧하다(6:27)      通籍은 言 得出入宮門이라(20:42)

言 赴蕃鎮入宴會하야 感傷所聞之曲也 | 라(20:3)

述; 此下는 述 肅宗收復之事하다 (20:5)      甫 | 自述 羈旅奔走而不復仕於朝也 | 라(20:53)

此下로 至兒女醜는 皆述 杜氏의 自陳之辭 | 라(8:55)

喻; 竹은 喻 節操하고 蘭은 喻 聲譽하다(6:19)      此는 喻 其兄弟也 | 라 (7:31)

上句는 喻 崔의 材質之美하고 下句는 喻 崔之困於小官이라 (20:47)

比; 此는 比尙書하다 (20:32)      其質之堅이 可比頭上鐵冠也 | 라 (16:53)

此는 比孔明於伊呂蕭曹也 | 라 (6:32)

指; 內熱은 指伏枕之病하다 (20:50)      神仙은 指佳人也 | 라 (20:3)

明公은 指楊監이라 (16:36)

謂; 謂 安居始興事하다 (7:29)

跋涉은 謂 奉使和吐蕃也 | 라 (20:34)

大官은 謂 嚴式 | 라 (6:40)

美; 此는 美先主하다 (6:31)

此는 美縣官之善政與謹身也 | 라 (6:19)

以上에서 볼 때 이들이 “—하다”系와 “—이라”系로 分化되어야 할 構文上의 差異는 發見되지

않는다.

이러한 現象은 連結語尾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다.

雄이 方草太玄經이어놀 或이 嘲雄以玄尙白하야놀 雄이 解之훈대(7:1)

은 同一文에서 VP 다음에 “—이라”系(—이어놀)와 “하다”系(하야놀)가 쓰인 例다.

耕者 雜於渭濱居民之間이러니……(6:30)

隋入楊素 善畫하더니……(16:29)

에서도 “—이라”系(—이러니)와 “—하다”系(하더니)가 VP 다음에 쓰이고 있다. 대체로 文의 終結形에서는 “—이라”系가 優勢한 편이나 文의 連結形에서는 “—하다”系가 優勢하게 쓰이는 差가 있을 뿐이다.<sup>(11)</sup>

以上에서 “—이라”系는 文의 終結이나 連結에서 普遍的으로 쓰이는 口訣임을 알 수 있다.

“VP이라, AP이라”에서 “—이라”가 懸吐되는 것은 이 “—이라”의 普遍性에 말미암는다. 儒胥心知에는 “大抵吏吐 臣告君 賤告貴 則皆加白字 又用教是等語 是字 爲字 隨勢改換爲好”이라 하여 “—이라”系와 “—하다”系가 隨時로 交替될 수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 吏讀과 性格上的 差異가 있지만 口訣도 이에 準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그러나 國語文法에서 “—이라”와 “—하다”가 區別되는 以上 이들 間의 어떤 差異가 이 註釋文에 反映될 것으로 생각된다. 本來 國語에서 “—이라”와 “—하다”는 時相이나 叙法에서 完全히 一致하는 것이다. 단지 “—이라”가 普遍的으로 쓰임에 대하여 “—하다”는 하나의 條件이 더 붙는 것뿐이다. 그것은 文의 終結이나 文과 文의 連結에서 하나의 句讀가 끝난다는 確認 以外에 한 段階 더 깊이 들어 가서 그 文이 用言叙述語를 가진 文이라는 事實을 確認한다는 條件이 더 附隨되는 것뿐이다.<sup>(12)</sup> 即 “—이라”는 單純한 句讀의 確認에서 最初로 產出되는 懸吐이고, “—하다”는 이 句讀의 確認과 함께 用言叙述語에 대한 確認이 附加되어 產出된 懸吐이다.

이 “—이라”系는 國語로서는 體言에 連結되어 文을 終結하는 語尾이다. 漢語의 “VP”는 같은 註釋文의 國語表現에서 다음과 같이 表現되고 있다.

遊衍은 그를 너비 해 아로물 니르니라 (16:1)

이는 나는 相如 〓 뜰 곧더 묻호니 그되논 傳說 곧도다 니물시라 (15:35)

이는 지죄 찰터 업스니라 호논 마리라 (15:37)

이들 “니르니라”, “니물시라”, “호논 마리라” 등은 VP의 中心語 “言, 說, 謂”等에 對한 對譯에 該當하는 것이다. “니르니라”는 “言……하니라”에 該當되고 “니물시라”와 “호논 마리라”는 動名詞의인 것으로 “言……(也)이라”에 該當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漢語의 “VP”에 대한 國語

(11) 語尾에 따라서는 어느 하나로 統一되는 傾向이 있다. 即 “—이고”는 普遍的으로 쓰이나 “—하고”는 發見하기 어렵다.

(12) 漢文이 國語로 對譯될 때 必要로 하는 모든 虛辭를 口訣이 反映하지 않음은 前述한 叙法에서도 보아 왔다.

表現은 用言敘述語로도 可能하고 體言敘述語로도 可能하다. 이것이 懸吐에서 “VP<sub>하</sub>다”와 “VP<sub>이</sub>라”로 分化되는 要因의 하나가 된다.

“—이라”는 漢語의 語氣詞 “也”와 밀접한 關係가 있다. 王力은 語氣詞을 一種의 叙法(mood)을 表示하는 것이라 했고, “也”를 “矣”와 對比하여 說明하고 있다.<sup>(13)</sup> 即, “也”는 狀況을 나타내고 “矣”는 過程을 나타내는 것으로 “也”는 時間的인 因素(資質)에 着眼하지 않은 表現이고 “矣”는 時間的인 因素(資質)에 着眼한 表現이다. “可知也” 하면 前부터 確 알고 있었는가, 또는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는가 하는 時間的인 問題를 考慮하지 않은 表現이나, “可知矣” 하면 以前에는 몰랐던 것이 지금에 와서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 하였다. 또 “也”는 判斷句나 判斷的 範圍에 드는 事實을 말할 때 使用한다 하였고, 繫詞 “是”의 發達과 함께 漸次 그 使用範圍가 縮小되었다고 하였다.<sup>(14)</sup> 이와 같이 “也”는 話者가 어떤 事實이나 狀況을 客觀的으로 判斷하여 一切의 主觀을 介入시키지 않고 說明할 때 쓰이는 것이고 이것은 一次的으로 國語의 “—이라”에 對應하는 것이다. 即 “—也 | 라”는 主觀을 介入시키지 않은 判斷敘述이다. “—하<sub>다</sub>” 역시 叙法上으로는 “—이라”와 같으나 “—이라”가 單純히 “VP<sub>也</sub>”의 “也”에 對應되는 反面 “하<sub>다</sub>”는 “VP<sub>也</sub>”의 VP에까지도 關係하고 있음에서 差異가 있다. 이와 같이 보면 “—也 | 라”는 漢語의 “也”와 國語의 “—이라”가 機能上으로 重複되는 것이다.

註釋文에서 “NP는 NP(也)이라”와 “NP는 VP(也)이라”는 判斷敘述의 代表的인 表現이다. 即

① 岸은 頰巾也 | 라 (7:21)

② 逗는 注也 | 라 (7:9)

는 모두 判斷敘述이다. 여기서 ①은 國語的인 註釋의

祇樹園은 더리라 (杜 16:4)

文은 글와리라 (訓民正音諺解)

故는 전치라 (上同)

濛濛은 마논비라 (南明下 6)

에 對應되고 ②는

乞는 줄시라 (杜 15:10)

制는 빙 마른실씨라 (訓民正音諺解)

有는 이실씨라 (訓民正音諺解)

參差는 마죽디 아니홀시라 (南明下 6)

에 對應되는 것이다. 即 ②는 國語의 動名詞句 “홀시라”에 對應한다. 이 ②의 敘述句를 擴大하면

乞은 音氣홀니 與人物也 | 라 (20:45)

周旋은 相追逐也 | 라 (20:6)

繪繳은 以絲로 繫矢而射也 | 라 (16:70)

此는 言肅宗이 還長安이라 (20:33)

此는 言欲逝去而不仕也 | 라 (20:19)

(13) 王力, 『漢語史稿·中』, pp. 443—447

(14) 漢語에서 “也”의 使用은 必須的인 것이 아니어서 “君子之德 風, 小人之德 草(論語顏淵篇)”에서는 “也”가 使用되지 않았으나 “君子之德 風也, 小人之德 草也(孟子滕文公篇)”에서는 使用되는 隨意性을 보이고 있다.  
cf. 周法高, 「幾個常用詞的來源」, 『中國語文論叢』, 正中書局, 1964, p. 154. 및 楊伯俊, 『中國文語文法』(波多野太郎外共譯), 江南書院, 1956, p. 179.

의 같이 된다. 여기서의 “VP이라”는 國語表現의 “홀시라”에서 動名詞的인 要素 “홀스”를 消去시키고 “—이라”만이 懸吐된 것이다. 이것은 “—이라”가 動名詞的 表現의 한 縮約形으로 懸吐되는 契機를 說明할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이라”는 “NP는 VP也 | 라”와 같은 形式에 拘碍된 判斷敘述보다는 더 高次的인 次元에서의 判斷敘述이다. “—이라”는 亦是 句讀의 確認에서 一次的으로 產出되는 判斷敘述이다. 法華經 諺解에서도,

以無畏로 說法이샷다 (法華 3:157) → 無畏로 法 니르시닛다

와 같이 懸吐와 諺解를 比較하면 “—이라”系로 懸吐된 것이 “—하다”系로 諺解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라”系가 動名詞로 把握될 때만 懸吐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sup>(16)</sup>

다음에 “—하다”가 產出되는 文과 그것이 產出되는 契機에 對해서 考究해 보기로 한다.

通籍은 言 得出入宮門이라(前出)

此下로 至飛揚은 言 畫工精巧하다(前出)

에서 “—이라”와 “—하다”는 같은 環境에서 使用되었다. 그러나 “—하다”는 “行爲者——行爲”의 文에 懸吐되는 것이 原則이다. 이것은 構文上 大體로 “NP이 VP하다”로 나타난다.

安이 吟嘯自若하다 (8:14)

衛青이 起自奴僕하다 (20:4)

漢武故事에 高皇廟中御衣 | 自篋中으로 出舞殿上하다 (6:24)

等이 그 例이다. 따라서 敘述句가 “VP하다”로 나타나면 반드시 그 行爲者가 있다.

下句는 甫 | 自喻 流落하다 (7:15)

에서 “喻……하다”의 主語는 “甫”이고 “甫”가 그 行爲者이다. “NP는 VP하다”에서는 主語인 行爲者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此篇은 咏明皇天寶中事하다 (6:11)

에서도 “咏……하다”의 主語는 原作者 杜甫이다. 이 때 主題語 “此篇”은 造格이 된다. 이 文은 模糊性을 지니고 있어서 “此篇”이 主語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主語로서의 “此篇”은 擬人化한 것이다.

此下는 言 畫馬하다 (16:26)

에서도 “言……하다”의 主語는 原作者가 될 수도 있고 “此下”가 될 수도 있다. “此下”가 主語라면 그것은 亦是 擬人化한 것이다.

鼎湖는 見五卷入註하다 (6:24)<sup>(17)</sup>

에서 “鼎湖”는 主題語와 主語를 兼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主題—解說”文에서는 “VP이라”가

(15) “홀시라”는 註釋文의 “X는 Y이라”의 X와 Y가 等價 即 “X=Y”이고 Y가 用言일 때에 그 Y에 對한 諺解에 使用되고 있다.

(16) 李崇寧, 「‘—하다’考」, 國語學論叢, 東亞出版社, 1966, p.90 以下 參照

(17) 杜詩에서 註釋의 所在을 밝히는 “見”은 반드시 “見……하다”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見”이 가지고 있는 어떤 實質에 달미않은 것이 아니라 文體的인 傾向이다.

쓰이고 “行爲者—行爲文”에서는 “VP하다”가 쓰인다. 卽

NP는 VP이라

NP이 VP하다

로 나타나는 傾向이 있다. “NP는 VP하다”로 나타나는 경우도 그 主語는 大體로 行爲者로 把握되는 것이다.

“NP이 VP也 | 라”의 構文은 極히 드물다. 間或

其質之堅이 可比頭上鐵冠也 | 라 (16:53)

甫 | 爲拾遺하야 與秘書로 齊肩待天子之鳳輦也 | 라 (20:42)

와 같은 構文이 나오나 이것은 그 主題(上句는, 下句는 等)가 省略된 것이다.

形容詞句가 敘述語일 때도 大體로 “NP이 AP하다”로 나타난다.

三分은 謂 魏吳蜀이니 當時에 孔明이 多謀策하니라 (6:32)

金帶는 吐鰓雜니 其肉이 脆美하니라 (16:72)

草堂이 近翠微寺하니라 (7:32)

“—이라”가 쓰일 때는 반드시 “AP也 | 라”로서 “也”를 同伴한다.

兩省이 在殿左右 | 如人之臂掖也 | 라 (6:6)

俊拔은 筆力이 超逸也 | 라 (16:21)

傳呼淺은 在畫하얀 不若夜之遠也 | 라 (6:15)

判은 普官反하니 與拚同也 | 라 (21:4)

“NP는 AP하다”의 例가 나온다.

寓는 與宇로 同하다 (16:10)

贊은 音貳하니 似狗而多力獷惡하니라 (20:24)

이 때의 “NP는”은 主題와 主語를 兼하고 있다.

以上에서 “—하다”가 產出되는 環境을 檢討해 보았거니와 “—하다”는 “行爲者——行爲”文에서 主로 나타나고 主題와 主語를 兼한 “NP는”을 가진 用言敘述文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一次的으로 句讀가 把握된 다음 二次的으로 “—하다”를 產出하게 되는 環境이다.

## V. 主 題 文

註釋文은 原詩의 內容을 讀者들이 理解하고 鑑賞하도록 하기 위하여 解說을 加한 文이다. 따라서 註釋文은 註釋의 對象이 되는 部分과 註釋을 加한 部分으로 兩分되는 것이 原則이다. 註釋文에서 註釋의 對象은 主題(theme)로 나타나고 註釋을 加한 部分은 解釋(comment)으로 나타난다. 卽, 註釋文은 一般的으로 主題文의 形式을 띤다. 杜詩註釋文에서 主題文의 性格은 曹偉의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한 것이 示唆의이다.

……地里 人物 字義之難解者 逐節略疏……

이에 依據하면 杜詩註釋文의 主題는 “地理, 人物, 字義”가 되고 解釋의 方法은 “逐節略疏”

한 것이 된다. 이에 따라 註釋文의 主題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 ① 地 理

- 土囊은 谷口 | 라 (6:2)                      赤縣은 京邑屬縣이라 (16:29)  
 石首는 江陵入 屬邑이라 (20:31)              窮巷은 甫之家巷也 | 라 (16:18)  
 衛는 河北이오 燕은 范陽이니라 (20:16)      橘井은 在郴州호니라 (20:13)

### ② 人 物

- 吳生은 吳道子 | 라 (6:27)                      旭은 東吳人也 | 라 (16:21)  
 張景順은 開元時人이니 以太僕으로 領羣牧호니라 (16:40)  
 太傅는 謝安이니 雖富貴而放情丘壑호니 以比嚴公호다 (16:43)  
 爽公은 段志玄이오 鄂公은 尉遲敬德이라 (16:26)

### ③ 字 義

- 籠은 竹名이라 (7:1)                      磊落은 高大兒 | 라 (20:40)  
 逗는 注也 | 라 (7:9)                      殷은 去聲이니 雷聲也 | 라 (7:24)  
 鐵鳳은 闕屋上에 作鐵鳳形호니라 (20:48)      砵는 與厲로 同호니라 (8:54)

以上 地理, 人物, 字義는 結局은 原詩에 쓰인 字句이다. 實際로 杜諺의 註釋文에는 이밖에 原詩 全篇의 內容, 數句의 全 內容, 또는 一句의 全 內容에 대해서 解說한 것이 있다.

### ④ 全篇의 內容

- 此는 必南部 | 被讒而判官이 按治之也 | 니라 (21:34)  
 此篇은 늘근 桃樹보물 因호야서 感今懷昔之作이니……(15:22)  
 此首는 專爲長安喪亂而作호니라 (6:7)

### ⑤ 數句의 內容

- 此下로 至兒女醜는 皆述 杜氏의 自陳之辭 | 라 (8:55)  
 此下는 言 將軍之畫功臣也 | 라 (16:26)              此下는 言 共遊所見之事호니라 (20:29)

### ⑥ 한 聯 또는 한 句의 內容

- 此는 亦洗兵馬之意라 (6:50)                      上句는 言 劉호고 下句는 甫 | 自謂라 (20:23)  
 此는 甫 | 自叙라 (7:32)                      此는 用同姓호야 言 鄭李之好客待士호니라 (20:6)  
 此는 言 夔州之暖也 | 라 (20:2)                      下句는 言 收復長安也 | 라 (20:33)  
 上句는 言 甫 | 罷華州司功而來也 | 라 (20:38)

以上에서 보던 全體의 內容을 主題로 할 때는 “此는, 上句는, 下句는, 此下는, 此首는, 此篇은” 등이 주로 쓰임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杜諺 註釋文의 主題는 字句를 解釋하기 위한 主題와 內容全體를 解釋하기 위한 主題로 大分할 수 있다.

主題의 格은 解說句의 性質에 따라 決定된다.

### 1) 主 格

“NP는 NP이라”의 文型에 쓰이는 主題는 곧 主格이 된다.

馮紹正은 開元時人이라 (16:36)

浩蕩은 悠遠不定止兒라 (7:23)

稗는 草라 似穀者라 (7:34)

“NP는 VP이라(하다)”의 文型에서도 主格이 될 수 있다.

錦城及浣花溪는 皆在成都라 (20:27)

市橋는 在成都西南하다 (7:6)

鼎湖는 見五卷入註하다 (6:24)

雲安縣은 屬夔州하니라 (6:51)

“NP는 AP이라”에서는 主格이 된다.

判은 普官及하니 與拚同也라 (21:4)

絕隨肩은 無交友也라 (20:2)

### 2) 目的 格

此는 爲舞者作이라 (16:52)

此首는 專爲漢陂之景而作이라 (6:10)

이 目的格이 主題가 되는 例는 極히 드물고 叙述語가 “作”인 경우에만 目的格으로 把握되는 것이 發見된다. 이 경우도 “作”에 대해서는 目的格이지만 이 文이 國語로 翻譯되면 “此는……作한 것이라”로 되어 “것이라”의 主語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 主題는 主格과 目的格으로 풀이되는 曖昧性을 띤다.

### 3) 造 格

“NP는 VP하다”의 構造에서 主題語는 造格으로 나타나는 것이 一般的이다.

朱炎赫은 指言暑熱하다 (7:23)

에서 “指言”의 主語가 原作者일 경우 主題語 “朱炎赫”은 造格이 된다. 即

甫라 朱炎赫으로 指言暑熱하다

와 같이 풀이할 수 있다. VP의 中心語가 “指, 言, 叙, 述, 用, 喻, 美……”等 原作者의 表現態度를 解說하는 動詞이면 主題語는 造格이 된다.

此下는 述 肅宗收復之事하다 (20:5)

吹噓는 喻 薦引하다 (20:34)

此上은 言 武后朝之事하다 (20:22)

此는 美先主하다 (6:31)

此는 比尙書하다 (20:32)

그러나 이 主題語가 擬人化되면 主格이 될 수 있다. 여기서도 主題語는 曖昧性을 띠고 있다.

“此는 甫라 自述하다”와 “此는 甫라 自叙라”는 懸吐된 “—하다”와 “—이라”에 따라 前者의 叙述句를 動詞句, 後者の 叙述句를 動名詞句로 보면 前者의 主題語는 造格, 後者の 主題語는

主格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라”는 句讀에서 一次의으로 把握되어 懸吐된 것이므로 諺解에서는 “-하다”系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라”를 “-하다”로 代替시키면 主題語는 亦是 造格이 될 수 있다. “NP는 VP이라”에서 VP의 中心語가 原作者의 叙述態度를 解說하는 動詞 “言, 指, 述, 喻……”等일 경우 大體로 이와 같은 曖昧性을 띤다. 그러나 “-이라”만을 重視하면 다음 例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主題語는 主語로밖에는 把握되지 않는 것이다.

此篇은 思長安而懷明皇也 ] 라 (6:11)

點朝班은 想省中諸公之朝也 ] 라 (6:9)

此는 避亂을 닦다가 再來而見其船之破也 ] 라 (6:44)

이들은 VP를 NP化하는 어떤 形態素들이 懸吐의 特質上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NP는 VP하다”에서도 主題語는 主格으로밖에는 把握되지 않는 것이 있다.

鐵鳳은 闕屋上에 作鐵鳳形을 닦는다 (20:48)

咎殃은 甫 ] 患瘡病을 닦는다 (20:36)

靑衿은 學者 ] 父母 ] 在어든 綠衣領以靑을 닦는다 (6:21)

仙掌은 漢武帝 ] 立金露盤을 닦는다 有仙人掌을 닦는다 承露和玉屑而飲之을 닦는다 (6:5)

等的 主題는 叙述句와 意味上 等價의 것이어서 그 主題는 主語로밖에는 볼 수 없는 것이다.<sup>(18)</sup>

#### 4) 處 格

註釋의 對象으로 登場한 主題語가 處格으로 把握되는 경우는 極히 드물다.

志士는 多苦心이라 닦는다 (16:20)

를 國語로 돌이하면 “志士”가 處格의 位置로 바뀔 수 있다. 이밖에 “今日엔 (15:22)”, “昔時엔 (15:22)”, “權門之貴엔 (8:32)” 등과 같이 處格 助詞에 主題化 添辭가 結合된 것이 있으나, 이들은 註釋의 對象은 아니다.

主題文에서 主題語가 省略되는 例는 흔히 있다.

① 言 欲得劉詩을 닦는다 以慰我心也 ] 라 (20:22)

에서 “言” 앞의 主題語가 省略되었다. 이 “言”은 杜諺註釋文에서 常套의으로 쓰이는 것이어서 그 頻度가 높고, 또 그 앞의 主題語가 省略되는 例도 흔히 나타난다. 省略된 主題語는 “此는, 上句는, 下句는” 등이어서 곧 再生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밖에

謂 安居始興寺을 닦는다 (7:29)

述 移居所見之物을 닦는다 (20:54)

喻 意氣 ] 相合을 닦는다 (20:53)

美 二州山水之勝을 닦는다 (20:38)

喻 盜賊之亂에 民生이 困窮也 ] 라 (20:54) 蜀主 ] 欲復漢業而憑仗諸葛也 ] 라 (6:30)

甫 ] 自述羈旅奔走而不復仕於朝也 ] 라 (20:54)

等에서도 그 省略된 主題語는 쉽게 再生할 수 있다. 이들의 主題語 亦是 “此는, 上句는……”等으로 原詩의 內容을 指示하는 것들이다.

(18) 이 경우의 “을 닦는다”, “을 닦는다”에는 動名詞語尾 “-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② 浣花東에 有萬里橋하다(7:2)

는 原詩 “東行萬里堪乘興”의 “萬里”를 註釋의 對象으로 한 것이다. 이 “萬里”를 主題語로 살려 ②의 文을 “萬里는 浣花東에 有萬里橋하다”로 表現할 수도 있겠으나, 不自然스럽다.

又以神龍으로 喻 崔하다(20:47)

는 原詩 “我聞龍正直”의 “龍”을 註釋의 對象으로 한 것이다. 이 “龍”을 主題語로 再生시키기는 어렵다. 이것을 오히려 “此는 又以神龍으로 喻崔하다”로 보아 句의 內容을 解說할 때 쓰이는 “此는”을 再生시킬 수 있으나 이 註釋은 註釋者가 原詩의 “龍”에 대한 解說을 하려고 한 것이 句의 內容을 解說하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再生도 無理이다. 이 例文은 오히려 “行爲者——行爲文”으로 보는 것이 自然스럽다. “行爲者——行爲文”은 杜詩註釋文에서는 흔히 主題文의 從屬句로 쓰이나 이와 같이 獨立될 수도 있는 것이다.

## ③ 楊雄과 司馬相如 | 라(16:18)

이것은 原詩의 “視我楊馬間”의 “楊馬”를 註釋의 對象으로 한 것이나 省略되었다. 本文의 難解字句에 대한 註釋에선 이러한 主題語의 省略이 極히 드물고 詩題에 對한 註釋에서 흔히 發見된다. 이에 해당하는 註釋文과 그 詩題를 들면

娥皇女英이라——湘夫人祠(6:28)

唐太宗陵이라——行次昭陵(6:23)

玄宗時에 樂工이라——江南逢李龜年(16:52)

平侍御之硯이라——石硯(16:53)

等 比較的 많은 例를 發見할 수 있다.

## ④ 通泉縣이 屬梓州하니 即郭薛之遊處 | 라(16:29)

이것은 “……(는)니”로서 主題를 提起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sup>(19)</sup> “……(는)니” 다음에 와야 할 主題語 “通泉縣”을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省略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前句의 主語나 主題語를 重複을 避하기 위하여 後句에서 省略하는 例는 흔히 發見된다.

乘槎는 暗用 張騫의 乘槎上天河事하니 言蕭之居要職하다(20:39)

晉文公이 賞從亡者하니 喻 肅宗의 推恩隨駕者 | 라(16:23)

豐鎬는 在長安하고 潤澗은 在洛陽하니 皆甫의 故鄉이라(20:8)

子如何는 言 古人이 遭亂代하야 成敗에 如是하느니 今子 | 爲之奈何리오 慰之之辭 | 라(7:28)

(下線部分이 윗줄친 말 앞에서 省略됨)

主題化 添辭는 “는, 은, 은, ㄴ, 란”이 쓰이고 “는”은 一切 發見되지 않는다. “란”은 24:4에 한 例가 發見될 뿐이다. “은”과 “은”은 大體로 母音調和에 따르나, “黃公은(16:7), 明公은(16:36), 客은(15:14), 仙客은(16:32)” 등과 같은 混亂이 보이고 大體로 “은”보다는 “은”이 優勢하다.

“ㄴ”은 “今日엔(前出), 昔時엔(前出)”과 같이 處格助詞에 連 連結되어 쓰인다.<sup>(20)</sup> “蠶는(8:45)”

(19) 連結語尾에 依하여 主題를 提起할 때 主題化 添辭는 使用되지 않는다. 그러나 “今論策之功컨대 超過五丁也 | 라(6:17)”에서 “—엔”의 “ㄴ”이나 그밖에 “하얀”, “하면”의 “ㄴ”은 이러한 主題化添辭와 同語源일 것으로 보아 이들과 關聯시켜 考察해야 할 것이다.

은 名詞 末音 “ㄴ” 뒤에 “ㄴ”이 쓰인 點이 特異하나 이것은 誤植이라기보다는 17世紀 初期 國語에서 흔히 보이는 이러한 連結의 端初로 생각된다.<sup>(21)</sup> 이 主題化 添辭가 省略되는 例는 極히 드물어

蒲城·即奉先縣이라(16:30)

疊疊·重疊兒 ㄴ라(20:2)

再宿·曰信이라(7:23)

小城·在蜀 ㄴ다(6:51)

등과 같이 構造가 單純하고 짧은 主題文에서 省略된 것이 發見된다.

#### IV. 格 助 詞

漢語에서 格表示는 主로 語順에 依하고 單語間의 關係나 極少數의 虛辭에 依하고 있으나 國語에서는 格을 表示하는 助詞가 훨씬 發達되어 있다. 懸吐式註釋文에서 格을 表示하는 助詞는 漢語의 語順에 拘碍받기는 하나 比較的 自由롭게 懸吐되고 省略되는 例는 드물다.

##### 1. 主 格

主格은 主題語의 大部分이 이에 屬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아 왔다. 여기서는 主格助詞 “—이”를 中心으로 記述한다. 漢語에선 主格을 表示하는 虛辭가 따로 없고 語順에 依支하여 表現되는 데, 그 語順은 國語의 主語의 位置와 大體로 一致한다. 따라서 杜謄 註釋文에선 豊富한 主格助詞 “—이”의 使用例를 發見할 수 있다. “—이”의 形態音韻論的인 變異는 15世紀 國語에 準하나 “其弟 ㄴ(16:14)”에서와 같이 “ㄴ”로 끝나는 重母音 뒤에 쓰이는 例外가 間或 있다.

漢語文法에선 “主語 + 體言敘述語”로 이루어지는 文(句)을 判斷文(句), “主語 + 形容詞敘述語”로 이루어지는 文을 描寫文(句), “主語 + 動詞敘述語”로 이루어지는 文을 陳述文(敘述文)으로 나누어 文(句)을 크게 三分한다.<sup>(22)</sup> 懸吐式 註釋文도 이에 準해서 그 格에 對해서 考察하기로 한다.

主題語를 主格으로 하는 主題文은 大體로 判斷文에 들고 一部가 描寫文과 陳述文에 든다. 主題文 以外에 主格助詞 “—이”가 쓰이는 判斷文은 다음과 같다.

鄭子產의 名이 僑 ㄴ라(20:45)

名이 崇簡이라(8:51)

老子의 姓이 李라(6:27)

孔子 ㄴ弟子 ㄴ 三千人이라(6:22)

唐與杜 ㄴ 本同族也 ㄴ라(8:52)

描寫文이 主題文으로 表現되는 例는 比較的 드물고 主格助詞 “—이”가 쓰이는 文이 普遍的으

(20) cf. 李基文, 『改正國語史概說』, 民衆書館, 1972, p. 172

(21) cf. 李崇寧, 「17世紀 初期 國語의 形態論的 考察」, 『東洋學 第二輯』, 檀國大 東洋學研究所, 1972, pp. 13—14

(22) 許世英의 『中國文法講話』, (臺灣開明書商, 1967) 및 楊伯峻의 上掲書에서는 “有無箇向(存在句)”을 더 設定하기도 한다.

로 쓰인다.

我倉이 如陵이라(7:35)                      戰伐이 已久而田原이 荒廢也 | 라(16:68)  
 恩澤이 不均也 | 라(20:11)                      笛聲이 哀切하야 風雲이 亦爲之悽慘也 | 라(16:51)  
 其肉이 脆美하니라(16:72)                      村路 | 荒僻하니(7:16)

陳述文은 原則的으로 主格助詞 “이”가 쓰이는 文章이다. “NP는 VP하다(이라)”의 경우 “VP”의 主語는 主題語 “NP는”이 아니라 따로 “NP이”가 行爲者로 있음은 앞에서 보아온 바다.

時에 思明이 陷東郡하니라(7:3)                      言 山人이 恐懼遇寇而防避也 | 라(16:22)  
 又雄이 芳草太玄經하야 놀 或이 嘲雄以玄尙白하야 놀(7:1)                      言 蚊虻이 師膚 | 어든(16:58)  
 明皇入興慶宮에 小龍이 常遊於宮垣南池中하니라(6:11)  
 二妃望哭하대 淚 | 染竹成斑하니라(6:29)

主格的 重出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漢入姜肱이 兄弟 | 共一布被하니라(16:22)                      水 | 回流 | 如礪也 | 라(15:8)  
 甫與都使入兩家에 山川枕帶 | 其勢 | 相似하교……(7:17)  
 王維 | 能傳秀句而其弟 | 相國縉이 繼其風流也 | 라(16:14)

다음 例는 國語로 翻譯되면 主格的 重出이 되는 것이다.

王喬 | 有神術하더니(6:19)                      淮南王이 有鴻寶秘書而不以示人하더니(8:10)  
 天子 | 有孝感 則……(6:25)                      鮐背는 老人이 背有鮐文也 | 라(15:21)  
 言 高祖 | 禪位太宗이 如堯也 | 오 太宗이 有九功之德이 可歌 | 如禹也 | 라(6:23)

上例 “王喬 | 有神術하더니”는 國語로 表現하면 “王喬 | 神術이 있더니”로 될 것이다. 漢語 文法에선 “神術”을 “有”의 賓辭로 보고 있으나 國語에서는 主格에 該當된다. 15世紀 諺解에서 間或 “有”를 “두다”로 풀이하어 “有神術”을 “……神術을 뒀더니”와 같이 풀이한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神術”을 主格으로 보지 않고 賓辭로 본 것이다. 그러나 大體로 主格的 重出로 나온다.

漢語의 賓辭가 國語로서는 主格으로 나타나야 될 경우가 있다.

門多長者車轍하더니라(8:65)                      蜀入雅州에 常多陰雨하디……(7:7)  
 門無檢小也 | 라(20:33)                      言 家無餘物也 | 라(20:8)  
 聞 交趾에 出丹砂하교(7:5)                      琴曲에 有白雲曲하니(7:30)

이들 賓辭의 경우에는 語順上 懸吐를 할 수 있으나 國語로서는 主格으로 풀이된다. 다음과 같은 主格 懸吐는 特異하다.

青田에 有雙鶴이 生子하니라(16:34)                      又王喬墓에 有劍이 騰在空中하야(16:59)  
 帝令太史로 候望하시니 有雙鳧 | 飛來어 놀(6:19)  
 明皇이 好聞鷄하시니 有賈昌者 | 善養鷄어 놀(6:13)

太宗이 有九功之德이 可歌 | 如禹也 | 라(6:23)

“有雙鶴이生子하니라”의 “雙鶴”은 “有”의 賓辭인 同時에 “生子”의 主語가 된다. 漢語文法에선 이들을 兼語式 或은 遞繫式이라 부르고 있다.<sup>(23)</sup> 여기서 主格助詞 “이”를 懸吐한 것은 “雙鶴”이 “生子”에 대하여 맺는 關係를 表示한 것이나, “有”에 대한 關係를 表示한 것이냐가 問題된다. 工巧롭게도 “雙鶴”은 “有”에 대해서도 國語에서는 主格으로 表現되고 “生子”에 대해서도 主格이 된다. 그러나 杜諺에서는 格表現에 있어 先行하는 體言이 後行하는 語辭에 대해서 맺는 關係는 表示되어도 後行하는 語辭에 對해서 맺는 關係는 原則적으로 表示되지 않는다. 이것은 懸吐의 機能이 一次的으로 句讀를 表示한다는 原則에 符合하는 것이다. 이 點에 있어 杜諺 註釋文의 懸吐는 他 諺解書의 懸吐와 差가 있다. 이에 對해서는 다음 目的格에서 다시 言及될 것이다. “雙鶴이”의 主格이 “生子”에 대한 格表示가 되면 “有”에 대한 懸吐는 無視된다. “有”에 대한 懸吐를 한다면 “有雙鶴하야”가 可能하다.

動名詞句나 形名詞句가 主語로 쓰일 때는 “一흠+이”가 懸吐되기도 한다.

侍御 | 入奏하야 忠言이 上沃帝心호미 如蔗漿然也 | 라(8:22)

別巫山人神女廟호미 在春風에 聞杜鵑時니라(20:12)

許生이 能詩 | 得於心而應於口하야 無差失호미 如太馬의 鬣鬣 두드러 鳴호로매 得於心 應於手하야……(16:2)

그러나 이와 같이 動名詞 語尾를 使用하는 例는 드물고 動名詞句나 形名詞句에 直接 主格助詞를 懸吐함이 一般적이다.

介士은 爲人이 孤介不群也 | 라(8:52)

言 高祖 | 禪位太宗이 如堯也 | 오(6:23)

豈特曾與崔로 談論이 如決江河而已리오(20:50)

天設之險이 難立은(7:9)

言 明府與尙書로 不久而當同席이 如連理枝也 | 라(20:31)

主格助詞의 懸吐가 省略되는 例는 다음과 같다.

劉琨 · 曰 常恐祖生의 先我著鞭하노라(20:8)

漢高祖 | 曰 吾 · 亦從此逝矣라 하니(20:19)

言其作詩 · 愜心하야 飄逸飛動하니 人 · 不能勝也 | 라(20:23)

此는 言 兵亂이 未息而儒道 · 不振也 | 라(6:21)

이러한 省略은 一定한 規則을 찾기가 어렵다. 語調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所有格

註釋文에서 所有格表現에는 國語의 助詞 “入”, “이/의”와, 漢語의 “之”가 쓰였다. “入”은 無

(23) 楊 伯峻, *op. cit.*, p. 262

王 力, *op. cit.*, p. 437

情物의 所有格을 주로 나타내고 有情物의 所有格을 나타낼 때는 그 有情物이 尊者가 된다. “이/의”는 주로 有情物의 所有格을 나타낸다.<sup>(24)</sup> 이것은 註釋文의 懸吐가 當時의 國語를 反映하고 있음을 意味한다. “이/의”는 恭待法에 있어서는 中性의 位置를 取한다. 즉 恭待法에 關與하지 않은 所有格 表現을 하는 것이다. 또 이들 所有格 다음에는 體言이나 VP(動名詞句)<sup>(25)</sup>가 온다. VP가 올 때 所有主는 그 VP의 主語가 된다.<sup>(26)</sup> 이 點에 있어서도 註釋文의 懸吐는 當時 國語와 一致한다.

## 1) “人”

A) 有情物+人+ $\left\{ \begin{array}{l} \text{NP} \\ \text{VP} \end{array} \right\}$ 

## ① 有情物+人+體言

神農入本草에 (15:8)

天子入六翼은 (20:42)

肅宗入乾元元年에 (8:19)

赴 落鎮入宴會하야 (20:3)

여기 쓰인 人名은 모두 尊者이다. “赴落鎮入宴會하야”는 纂註에는 “赴落候之宴會(20:3)”로 되어 있다. 即 “落鎮”은 尊者이다.

## ② 有情物+人+VP

當君王入求賢如渴之時하야 (20:49)

御史入所乘(15:43)

## B) 無情物+人+NP

## ① 國名+人+名詞

漢入高祖(8:2)

漢入季布傳(8:9)

晉入元帝(8:63)

唐入遠祖(6:26)

月支國入花名이라 (15:7)

晉入永嘉記(16:34)

## ② 地名+人+名詞

京城入西門(8:1)

江陵入地名(8:41)

西海入老子祠(16:15)

驪山入溫泉宮(16:39)

瑞聖寺入磨崖碑(16:3)

山陽入嵇康(20:29)

(24) 安 秉禧, 「中世國語의 屬格語尾 “-入”에 대하여」, 『李崇寧博士 頌壽紀念論叢』, 1968, p. 337 以下 參照

(25) 여기서의 VP는 動詞句를 가리키는 것으로 漢語의 立場에서 본 것이다. 國語의 立場에서 보면 이 VP는 動名詞句가 된다. 趙元任은 國語의 “入”에 대응하는 漢語의 “的(之)”를 單語接尾辭(word suffix)로 보지 않고 句接尾辭(phrase suffix)로 보아 그 뒤에 오는 動詞나 形容詞를 動名詞나 形名詞로 보지 않고 動詞나 形容詞로 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N(名詞)+之+V(動詞)→N”이 된다고 한다.

趙元任, A Grammar of Spoken Chines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p. 25 以下 및 p. 285 以下 參照.

(26) 李 基文, *op. cit.*, pp. 176—177 參照

이 國名이나 地名의 所有格 다음에 VP가 오는 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③ 事物+人+名詞

易蒙入卦(16:1)

見五卷入註하다(6:24)

“入”은 原則적으로 體言의 所有格을 나타내는데 “明皇潛邸入興景宮(6:11)”은 VP “潛邸” 다음에 “入”이 쓰였다. 이것이 “入”의 用法에서 보면 例外的인 것으로 國語文法에 準한다면 冠形形語尾가 쓰여야 하나 杜諺의 懸吐에서는 冠形形語尾가 쓰이지 않는 傾向이다. 그러나 “入”을 漢語의 “之”의 用法에 對應시켜 보면 自然스러운 것이다.

“은”이 쓰인 例가 있다.

黃綱은 色絲 |니 絶은 字 |오 幼婦는 少女 |니 妙은 字 |오 外孫은 女子 |니 好은 字 |오 齊曰는 受辛이니 辨은 字 |니 謂 絶妙好辨也 |라(16:9)

이것은 世宗代의 間音表記法의 餘痕으로 남은 것이다.<sup>(27)</sup>

杜諺 註釋文에서는 漢語의 語法에 따라 “入”이 省略된 例가 흔히 發見된다.

漢·桓帝(16:15)

晉·謝安이(8:26)

梁·孝王苑에(8:13)

見一卷·註하다(20:16)

漢語에서도 이 경우에 “之”를 使用하지 않는 傾向이다. 그러나 “入”과 “之”는 서로 對應된다.

纂註分類杜時에서 “之”가 使用된 것이 杜諺에서 “入”으로 對應하는 例들이 나온다.

赴藩侯之宴會(纂20:3) ~ 言 赴藩鎮入宴會하야(杜20:3)

亂離疾病之所感也(纂20:18) ~ 亂離疾病入所感也 |라(杜20:27)

等에서 “入”과 “之”가 直接 對應하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入”이 處格과 結合되어 複合格이 되는 例가 있다.

此字는 指上엿 殺戮等事 |라(6:39)

得鷹足엿 繫帛書하니라(8:47)

賜櫻桃時엿 所用之器라(15:23)

그러나 “桅樓는 船上入樓 |라(15:7)”에서와 같이 處格이 省略되는 것이 一般的이다. “劍門入天設之險(前出)”도 이에 들 것이다.

2) 이/의

“이”와 “의”는 母音調和에 따라 區別되나 “의”의 頻度가 높다.

① 人物+이/의+名詞

甫이 幼子(8:46)

佐의 姓은(8:50)

主人의 厚意(15:54)

佐이 茅屋景趣(8:51)

右丞王維의 別墅(16:14)

季布이 一諾(8:9)

(27) 이것은 이 註釋文의 草稿가 成宗 以前에 形成되었음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                             |                          |                            |
|-----------------------------|--------------------------|----------------------------|
| 老萊子 <sup>이</sup> 斑斕衣(15:54) | 梁王 <sup>이</sup> 園名(8:15) | 龐德公 <sup>의</sup> 隱處(8:47)  |
| 李斯 <sup>의</sup> 小篆(16:15)   | 李公 <sup>이</sup> 諫書(8:4)  | 甫 <sup>이</sup> 諫房琯事(20:42) |
| 侍御 <sup>의</sup> 霄襟(8:22)    | 司馬 <sup>이</sup> 形象(8:25) |                            |

② 人物+<sup>이</sup>/의+VP

|                                           |                                    |
|-------------------------------------------|------------------------------------|
| 美 文人 <sup>의</sup> 能詩也   라(8:6)            | 李潮 <sup>의</sup> 下筆(16:15)          |
| 使君 <sup>의</sup> 使嚴武(20:39)                | 魯人 <sup>의</sup> 頌君德(20:25)         |
| 言 王 <sup>이</sup> 生子 <sup>하</sup> 니라(8:14) | 喻 肅宗 <sup>의</sup> 推恩隨駕者   라(16:23) |
| 喻 白 <sup>의</sup> 不從磷也   라(16:7)           | 比甫 <sup>의</sup> 不獲歸本宗也   라(6:53)   |
| 我 <sup>의</sup> 早升其堂也   니라(8:14)           | 言 勤 <sup>의</sup> 自知其材能也   라(8:31)  |
| 激勉董卿 <sup>의</sup> 靖寇亂而量形雲臺也   라(20:53)    |                                    |

勉侍御<sup>의</sup>除寇로 爲心<sup>하</sup>고 勿志於畫像麟閣也 | 니라(20:30)

여기서의 所有主는 後行하는 動詞의 主語가 된다. 이 漢語의 VP가 國語로 翻譯될 때 動名詞句로 되는 것으로 理解하기 쉬우나, 이로 보면 國語의 動名詞句는 所有主까지 包含하는 것이다.

③ 人物+<sup>이</sup>/의+AP

|                          |                                   |
|--------------------------|-----------------------------------|
| 俗人 <sup>의</sup> 薄惡(15:4) | 老子 <sup>의</sup> 潔白(8:20)          |
| 甫 <sup>이</sup> 貧老(8:21)  | 喻 勤 <sup>의</sup> 年小而俊邁也   라(8:30) |

여기서도 所有主는 形容詞句의 主語가 된다.

④ 動物+<sup>이</sup>/의+VP

|                                       |                                              |
|---------------------------------------|----------------------------------------------|
| 如 鸛鵲 <sup>의</sup> 栖一枝之安也   라(6:16)    | 如 虎蛟 <sup>의</sup> 吞噬 <sup>하</sup> 니(8:18)    |
| 如 鵝鳥 <sup>이</sup> 排擊風雲之毛質也   니라(8:31) | 如 白駒 <sup>의</sup> 過隙之速 <sup>하</sup> 니(20:41) |

工巧롭게도 比喻的으로 쓰인 句에서 動物이 所有主로 쓰인 例단이 나타난다. 또 所有格 다음에는 모두 用言句가 된다. 所有主로 나타난 動物은 모두 擬人化된 것이고 이들은 用言句의 主語가 된다.

⑥ 事物+<sup>이</sup>/의+VP

|                                              |                                          |                                            |
|----------------------------------------------|------------------------------------------|--------------------------------------------|
| 言 京師 <sup>의</sup> 陷賊之禍 <sup>하</sup> 다(20:32) | 待寇亂 <sup>의</sup> 平 <sup>하</sup> 야(20:39) | 泉聲 <sup>의</sup> 動靜 <sup>이</sup> (7:23)     |
| 春雨 <sup>의</sup> 漏屋之時 <sup>에</sup> (7:20)     | 皆言 畦水 <sup>의</sup> 明潔也   라(7:37)         | 如 兔絲 <sup>의</sup> 附蓬麻 <sup>하</sup> 니(8:67) |

이 경우에도 所有格 다음에는 用言句가 오고 所有主는 그 用言의 主語가 된다. 이 所有主는 無情物로서 個中에는 文脈上 이 無情物의 作爲가 人間의 作爲에 比喻된 것도 있으나 “京師”나 “春雨”는 一種의 例外이다.<sup>(28)</sup>

(28) “京師”는 人間이 그 部分으로서 包含되어 있기 때문에 有情物로 볼 수도 있겠다. “春雨”도 “비 오시다”에서와 같이 擬人化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본 바 所有格助詞 “이/의”는 原則적으로 有情物의 所有格을 나타내는 데 使用되고 있다는 事實이 杜謔 註釋文의 懸吐에서도 確認되는 셈이다.

여기서 所有格 다음에 오는 “所”에 대하여 檢討하고 넘어 가기로 한다.

“荊南은 卽觀의 所居江陵이라(8:42)”에서 “所居”는 被動이 된다. 이 文의 主語인 “荊南”은 被動者가 되고 所有主인 “觀”은 主動者가 된다. “所”는 “處所”의 뜻도 가졌다.<sup>(29)</sup>

言 舅의 所往호고(8:62)      陽翟縣은 潁의 所居호(8:42)

言 弟의 所在라(8:45)      驥子의 所在라(8:46)

朔口는 岷江入所經이오(20:28)      言 侍御入所居호니라(20:28)

는 이에 屬하는 例들이다. 被動者인 主語는 흔히 省略된다.

“述甫의 所見호다”는 上例들과 같되 “所”에 “處所”의 뜻은 없고 被動만을 나타낸 것이다. “聞鶯而泣호며 見月而傷호니 亂離疾病入所感也호라(20:27)”에서 “所感”은 亦是 被動이 된다. 그 所有主 “亂離疾病”은 “感”하게 한 主動者이다. 國語에서는 “感”이 心理的인 動詞로서 人間을 主語로 取하는 것이기 때문에 “亂離疾病”은 主語로 把握되지 못하고 그 動作을 誘發한 原因으로만 把握되어 原因의 뜻을 갖는 處格으로 把握된다. 卽 “亂離疾病에 感호는 바”로 表現된다. “聞鶯而泣호며 見月而傷호니”는 主題로서 意味上 “所感”의 被動者가 된다. 또 “褒斜谷과 漢水는 歸路入所經之處호라(8:21)”에서 “所經”은 被動이고 “褒斜谷”과 “漢水”는 被動者이다. “歸路”는 “經”에 對해서 主格으로도 表現될 수 있고 處格으로도 表現될 수 있다. 卽 “歸路호經호는 바”도 될 수 있고 “歸路에 호經호는 바”도 될 수 있다. 處格으로 表現될 경우 그것은 時間을 뜻한다. 實際로 “金盤玉筋호 賜櫻桃時所用之器라(15:23)”에서는 處格助詞 “에”가 쓰이고 있다.

漢語의 古代語法에서 “所”가 “爲”와 結合하여 被動을 表現하는 形式에

① NP(被動者)+爲+NP(主動者)+所VP(被動)

② NP(被動者)+爲+NP(主動者)+之+所VP(被動)

와 같은 것이 있다. ①은 後代에도 普遍的으로 쓰인 形式이고 ②는 ①의 古形이다.<sup>(30)</sup> 杜謔에서는 이 兩者가 다 쓰이고 있다.

① 因荳의 爲莫所侵호로(16:67)

此는 言 非特荳호 爲莫所掩이라 芝蘭이 亦爲荊杞所敗니라(16:67)

② 扶行은 爲人之所扶호니(20:2)

言 君子호 易爲小人之所汚也호라(16:69)

이 ②의 “之”는 國語의 “이/의”와 같이 所有格을 表示하는 것이다. 杜謔에서는 이 “이/의”가 들어 가는 것이 一般的인 表現形式이다.

(29) 周法高는 “所”는 本來 “處所”를 뜻하던 名詞에서 被動을 나타내는 虛辭(助詞)로 發展한 것이라 하였다. cf., 周法高, 「“所”字之性質」, 『中國語言學論文集』, 香港 崇基書店 1968, p. 471 以下

(30) 周法高, 「古代被動式句法之研究」, 上掲書, p. 435 以下

言 王이 爲太守의 所留而借名園하야(8:11)      梁公이……不爲群邪의 所亂也 ㄴ 라(8:17)

甫 ㄴ 嘆 爲妻子의 所累하야(20:20)      君子 ㄴ 爲小人의 所掩抑하야(16:67)

와 같이 “이/의”가 들어 가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杜諺의 이 “之”나 “이/의”는 杜諺註釋者의 創作文에서 나온 것으로 纂註에서는 이 “之”를 使用하지 않은 것이 普遍的인 表現形式이다.

兩 文獻에서 對應하는 이 類型의 被動表現形式을 보이면

扶行은 爲人之所扶 ㄴ 니(杜, 前出) ~ 言 既睡起 爲人所扶(纂註20:2)

言 君子 ㄴ 易爲小人之所汚也 ㄴ 라(杜, 前出) ~ 謂 君子易爲小人所汚也(纂註16:51)

에서와 같이 纂註에 없는 “之”가 杜諺에서 介入된 것을 볼 수 있으며

白이 爲高力士의 所謂하야(杜16:5) ~ 白爲高力士所謂(纂註16:4)

甫 ㄴ 嘆 爲妻子의 所累하야(杜, 前出) ~ 甫傷爲妻子所累(纂註20:13)

와 같이 “이/의”가 介入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이/의”와 “之”가 介入하면 國語의 文構造에 보다 가까운 것이 된다. 이들이 들어 가지 않으면 兼語式이 되어 國語의 文構造와 보다 큰 差異가 있게 된다.

### 3) 之

國語의 所有格 助詞에 對應하는 漢語의 虛辭는 “之”이나 그 機能은 相互 一致하지는 않는다.

#### ① 人物+之+NP

侍御之硯(16:53)      甫之家巷(16:18)      杜之外家(8:64)

秘書之文(29:43)      佳人之眉(15:32)      彼之詩(20:36)

旭之逸氣(16:21)      祿山之類(20:4)      御史之職(7:27)

#### ② 人物+之+VP

遂有胡僧之問하니라(20:24)      思鄭李之輔佐也 ㄴ 라(20:5)      比武之有使君하다(20:40)

言 玄宗之幸蜀하다(20:42)      喻 崔之困於小官이라(20:47)      甫之望侍御 ㄴ (20:31)

#### ③ 人物+之+AP

言 縣官之美하다(6:19)      貧者는 士之常이니라(6:48)

#### ④ 動物+之+NP

如龍虎之朽骨也 ㄴ 라(16:33)      馬之眞性(15:17)      鷹之殺氣(16:35)

#### ⑤ 動物+之+VP

如鷹鷂之逐鳥雀이라하니(20:4)

#### ⑥ 事物(國名, 地名 包含)+之+NP

故鄉之景物(15:31)      槐葉冷淘之味(16:64)      身外之事(20:25)

|                |                         |                |
|----------------|-------------------------|----------------|
| 吳國之天(20:2)     | 竹之枝葉(20:37)             | 東津之漁(16:62)    |
| 天地之初(20:36)    | 朝海之勢(20:3)              | 塘水之色(7:37)     |
| 用人面獸心之義(15:17) | 在衣冠之列也   라(20:40)       | 行列之行이 라(15:56) |
| 斗升之水로(20:41)   | 衆香은 戒香定香慧香之類   라(20:13) |                |

## ⑦ 事物+之+VP

|                   |                    |             |
|-------------------|--------------------|-------------|
| 見其船之破也   라(6:44)  | 好詩之得人驚動也   라(8:13) | 世事之變을(6:7)  |
| 撓外物之侵也   라(20:25) | 爲竹林之遊기니(8:50)      | 蒲稗之生이(7:35) |

## ⑧ 事物+之+AP

|                    |                  |                     |
|--------------------|------------------|---------------------|
| 負朋友義分之明也   라(7:28) | 叢生兮山之幽   라(7:16) | 言 其色之澄徹也   라(16:55) |
| 喻 崔의 材質之美기고(20:47) | 以世故之多로(20:24)    | 其身之孱弱(20:13)        |

## ⑨ VP+之+NP

|                   |             |                |
|-------------------|-------------|----------------|
| 修仙之術이(20:25)      | 退食之祭에(6:14) | 臨深淵之戒(15:44)   |
| 伐壽數之斧(20:25)      | 陷賊之禍(20:32) | 夏月納涼之時에(16:64) |
| 滴水之哀音也   라(16:59) | 守陵之兵(6:25)  | 自陳之辭   라(8:55) |

## ⑩ VP+之+AP

|                      |                |
|----------------------|----------------|
| 皆言 殺賊之多기다(20:33)     | 言 用筆之快利也(8:30) |
| 言...唱和之忙也   라(20:38) |                |

## ⑪ AP+之+NP

|                |                  |             |
|----------------|------------------|-------------|
| 奸黠之吏(20:49)    | 清平之時(16:59)      | 直之所致也(8:53) |
| 瑤殿深蓮之中에(16:59) | 以蹉跎衰老之容으로(15:13) |             |

以上 “之”가 쓰인 것을 보면 ①~⑧까지는 “NP+之”이고 ⑨~⑪까지는 “VP+之”와 “AP+之”이다. “NP+之”의 “之”는 國語의 所有格助詞와 大體로 一致되는 것이나, “VP+之”나 “AP+之”는 對應되지 않는다. ⑨의 “VP+之+NP”나 ⑪의 “AP+之+NP”의 “之”는 國語의 冠形形語尾에 對應하는 것이고 ⑩의 “VP+之+AP”는 “VP+흥(動名詞句)+이(主格)+AP”에 對應될 수 있는 것이다. “NP+之+VP”나 “NP+之+AP”는 NP가 VP나 AP의 主語가 된다. 이 點에 있어서는 國語의 所有格과 一致한다. 그러나 國語의 所有格助詞는 “ㅅ”과 “이/의”가 있어 이들이 NP의 性質에 따라 區別되어 使用되나 漢語의 “之”는 그러한 區別이 없다. 漢語의 “之”나 國語의 “ㅅ, 이/의”는 그 前後의 句節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句를 形成하는 點에 있어 一致한다. 이 句는 名詞句가 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새로운 句를 이룰 때 그 한 句 안에서 所有格이 두번 쓰이는 例가 나온다. 即 “皆甫의 客寓之處 | 라(20:37)” 에서와 같이 한 句內에서 “의”와 “之”가 두번 나온다. 이 때 “ㅅ, 이/의, 之” 중 同一한 形態素가 두번 以上 繼續하여

하나로 묶이는 句 안에서 使用되는 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이들 間에도 順序가 있어

① ……入+……이/의……

宋入謝鳳이子超宗이 (6:4)

② ……入+……之……

以梁漢入貢賊之米와 水衡之錢로 (20:17)

賜櫻桃時喫所用之器라 (15:23)

③ ……이/의 +……之……

舍人의繼父之業(6:4)

京師의陷賊之禍(20:32)

唐皇의慕仙之意(6:8)

杜氏의自陳之辭(8:55)

崔의材質之美(20:47)

甫의養生修仙之事(20:24)

甫의昏蒙之心(16:1)

侍御의所檢察之州(8:23)

과 같다. 即 “之”가 “이/의”의 앞에 쓰이거나 “이/의”가 “入”의 앞에 쓰이지는 않는다. 또 한 句 안에서 이 所有格表現이 세 번 이상 쓰인 例도 發見되지 않는다. 이러한 事實들은 杜諺 縣吐式 註釋文의 한 特徵이라 하겠다.

### 3. 目的格

目的格助詞는 “를, 을, 을”이 쓰인다. “르”이 發見되지 않은 것은 資料의 制約일 것이나 “를”이 發見되지 않은 것은 主題化添辭에서 “는”이 쓰이지 않는 것과 같은 現象으로 생각된다.

이 目的格助詞는 體言과 VP(國語의 動名詞句에 該當)에 붙는다.

① 典章文物을 皆法古昔而……(6:24)

深意之詩를 傳於人則……(20:18)

② 小盡其力하고 老棄其身을 仁者 不爲라 하고(6:20)

其不得志而悲歌를 唯識者 知之也 니라(20:48)

吾之養拙을 更向何方이리오(6:28)

①은 體言에, ②는 VP에 目的格助詞가 붙은 것이다.

漢語에서는 動賓構造가 一般의으로 쓰이는 構造이고 賓動構造는 特殊한 制約下에서 쓰인다.

國語의 目的格助詞는 이 賓動構造에서 目的格을 表示하기 위하여 懸吐되는 것이 原則이다.

① 乘馬·其上하고(6:13)

② 奏事를 既罷하고(8:12)

③ 蜀人이 呼魚鮓을 爲苞蘆 라(16:64)

①은 動賓構造에서 目的格助詞가 懸吐되지 않은 것이고 ②는 賓動構造에서 目的格助詞가 懸吐

된 것이다. ①에서 “馬”는 “乘”의 目的語로 目的格助詞가 懸吐된다면 “乘馬” 다음이 아니면 안 되는데 이와 같이 動賓構造에서는 賓語(目的語)가 動詞에 대하여 맺는 關係를 表示하기 위하여 目的格助詞를 懸吐하지는 않는다. ③은 ①에 比하여 좀 複雜한 構造라 하겠다. “呼魚鮓 爲苞蘆”는 이른바 兼語式 또는 遞繫式이라 부르는 것이다. “魚鮓”은 兼語로서 “呼”의 目的語가 되는 同時에 “爲苞蘆”의 主語가 된다. 여기서 “魚鮓을”의 目的格表現이 “呼”에 대한 表現이나, 또다른 理由에 依한 것이냐가 問題된다. “呼”에 대한 表現이라면 이는 語順上 逆順의 懸吐가 된다. 卽 後行하는 語辭가 先行하는 語辭에 대하여 맺는 關係를 表現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漢文의 讀法이 漢語의 語順에 따라 읽지 않고 國語의 語順에 따라 읽었다는 結論에 到達하는 것이다. 懸吐는 一般的으로 先行語를 後行語에 連結하는 것이 原則인데 이 結論은 그 反對가 된다. 이러한 逆順의 懸吐는 他 文獻에서는 흔히 發見된다.

使信如來入明見이 無錯謬도 信케 하시니라(法華3:90)

가 그러한 例 中の 하나이다. 이의 諺解는

如來入 불마신 보샤미 그른디 업스신들 信케 하시니라(上同)

이다. 여기서 懸吐 “인들”은 “如來入明見이 無錯謬”가 “信”에 대하여 目的語인 것을 表現한 것이니 이는 逆順의 懸吐이다.

그러나 杜諺에서 逆順의 懸吐인지 順行的 懸吐인지 區別하기 어려운 이 例의 目的格 懸吐는 嶺南人이 呼急湍을 爲瀧이라(8:57)

婁人이 謂市井泊船處를 爲市鑿 오江水 橫通山谷處를 爲瀾이니라(20:9)

에서와 같이 “呼”와 “爲” 또는 “謂”와 “爲”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爲”는 繫詞의인 動詞로서<sup>(31)</sup> 國語의 “-이라”에 該當한다. 이 “呼魚鮓爲苞蘆”는 句讀上 “呼”가 一讀이 되고 다음 魚鮓爲苞蘆가 一讀이 된다. 杜諺 註釋者의 句讀도 이와 같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르면 “魚鮓을”은 “爲苞蘆”와 連結시켜 懸吐한 것이지 “呼”와의 關係만을 바탕으로 해서 懸吐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呼”와 “爲” 사이나 “謂”와 “爲” 사이에서만 目的格 懸吐가 나옴과 다른 경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事實이 이것을 뒷받침한다.

다음 例는 이 事實을 決定的으로 뒷받침한다.

峽人이 以操舟人을 爲長年이라(25:47)

에서 “以操舟人”에 “을”이 懸吐되고 있으나 直譯을 土臺로 하여 漢語文法에 맞게 懸吐한다면 “以”에 呼應되므로 마땅히 “(으)로”를 懸吐해야 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을”을 懸吐한 것은 이 文이 意味上 “呼……爲”의 文과 같은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以操舟人을”의 “을”이 “操舟人”이 “以”에 대해서 맺는 關係를 表示하는 逆順의 懸吐

(31) 楊伯峻은 “是”와 “爲”를 連繫性 動詞로 보았고 王力은 “是”와 “爲”를 區別하여 “爲”는 繫詞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爲”는 國語의 “-이라”에 때때로 對應된다. 楊伯峻, *op. cit.*, p. 10 및 p. 238 以下. 王力, 漢語史稿, p. 350 以下 參照.

가 아님은 勿論이다. 이 “을”은 後行하는 “爲長年”에 連結되는 順行的 懸吐이다. “爲”에 대한 國語의 異言語 對應은 여기서는 引用法의 “……이라 ㅎ다”이다. “呼……爲……”도 “……이라 呼ㅎ다”나 單純히 “……이라 ㅎ다”로 對應될 수 있다. “呼”가 單純히 “……이라 ㅎ다”로 代替된 引用文에서 “曰”이 “—이라 ㅎ다”만으로 表現되는 것에서 흔히 볼 수 있다. 杜諺의 格表示 懸吐에선 法華經諺解나 其他 文獻에서 볼 수 있는 逆順의 懸吐는 쓰이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懸吐式 註釋文에서 賓動構造로 作文하고 그 賓語(目的語)에 目的格助詞를 懸吐하는 例가 많은 것은 亦是 國語의 表現의 影響으로 생각된다. 杜諺註釋文의 目的格이 懸吐된 賓動構造의 文을 纂註의 註釋文과 比較하면

張伯英이 善草書<sup>을</sup> ㅎ다니 凡家之衣帛<sup>을</sup> 必先書而後練<sup>고</sup> (杜16:21) ~ 張伯英善草書 凡家之衣帛 必先書 而後練(纂註16:15)

에서는 두 文獻의 註釋文이 完全히 一致하는 것으로 杜諺의 註釋文은 懸吐된 것만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此는 言 主人의 厚意<sup>를</sup> 作此詩<sup>하야</sup> 以報之也<sup>라</sup> (杜15:54) ~ 琅玕 喻 主人投我爛熳之情意 而且重 故我作此篇什 以報之也(纂註15:39)

에서는 語順上으로는 비슷하나, “主人의 厚意<sup>를</sup>”을 目的語로 한 것은 杜諺註釋者의 作文에서 나온 것이다. 이와 같이 杜諺註釋文에서 目的格이 쓰이는 構文은 杜諺 註釋者가 參考한 纂註의 註釋文에서 賓動構造로 쓰인 것에 懸吐한 것보다도 杜諺註釋者가 作文한 文에서 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國語의 表現의 한 影響으로 나타난 現象이라 하겠다.

上例 “主人의 厚意<sup>를</sup>”은 纂註에선 하나의 文으로 表現될 內容을 要約하여 目的語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作此詩<sup>하야</sup> 以報之也<sup>라</sup>”에서 “主人의 厚意”를 指示하는 代名詞 “之”가 動詞 “報”의 目的語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이 本來 目的語가 아니었던 것을 要約하여 目的語로 바꾸거나 또는 文法上 目的語가 아닌 것을 目的語로 把握하여 目的格助詞를 懸吐한 다음, 漢語의 語法에 따라 이 目的語가 連結되는 動詞에 指示代詞 “之”를 添加하여 重複시킨 例가 흔히 나타난다.

其不得志而悲歌<sup>를</sup> 唯識者知之也<sup>라</sup> (杜20:48) ~ 以元戎之命而有行役 不能無悲歌 而惟有識者 能知之(纂註20:31)

將軍牙旗<sup>를</sup> 立於元帥帳前故<sup>로</sup> 謂之牙張也<sup>라</sup> (杜20:52) ~ 兵家書 牙旗將軍之旗 立於元帥帳前 故謂之牙旗(纂註20:33)

莊子 | 貸粟於監河侯 曰 轍中有鮒<sup>을</sup> 斗升之<sup>로</sup> 活之<sup>라</sup> ㅎ다 (杜20:41) ~ 莊周家貧 故往貸粟於監河侯 曰 周昨來 有中道而呼者 周視 車轍中有鮒魚焉……對曰 我東海之波臣也 君豈有斗升之水 而活我哉(纂註20:26)

이 “之”는 이 文이 國語로 表現될 때는 消去된다. 그리하여 이 註釋文에서도 이 “之”가 省略되는 傾向이 있다.

釋書에 釋迦牟尼佛을 謂·七祖라(杜20:12) ~ 按佛書 毗婆尸佛……迦葉佛 釋迦牟尼佛 謂之七祖(纂註20:8)

이것은 “凡兵之地을 謂之風塵이라(杜20:32) ~ 凡兵之地 謂之風塵(纂註20:21)”과 對照적이다. 이 註釋文에서는

頌魯는 甫ㅣ作詩하야 美使君을 如魯人의 頌君德也ㅣ라(20:25)

言 舟楫之疾을 如箭之急也ㅣ라(20:11)

와 같이 敘述句의 中心語가 “如”일 때 目的語를 取한 것이 있으나, 이는 “如”를 “같게 하다”의 뜻인 使動詞로 把握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現象은

言 旌賞武功을 如衛青霍去病이오 禮接文士ㅣ 如應德璉徐公幹也ㅣ라(20:3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同一文 안의 同一構造에서도 目的格과 主格으로 나누어 表現한 것으로 보아 註釋者의 態度에도 左右됨을 알 수 있다. 杜諺의 翻譯文에서는 “如”는 一般的으로 그 先行辭를 主格으로 取하고 있다.

#### 4. 處 格

杜諺註釋文에 懸吐된 處格助詞는 “에/에, 에”만이 쓰여 所有格의 “이/의”와 嚴格히 區別된다. 이 處格에 複合된 格으로는 所有格의 “은”이 添加된 것과 主題化添辭 “나”이 添加된 것이 있다.

處格助詞는 先行하는 語辭의 格을 限定하여 後行하는 語辭에 連結할 때 懸吐되고 國語와 語順이 다른 動賓構造에는 懸吐되지 않는다. 卽

堯關은 在藍田之西하니 觀이 已到江陵故로 云虛遠이라(8:41)

光武ㅣ 立高廟于洛陽하니(16:23)

李秘書ㅣ 拜補闕하야 扈從肅宗於即位改元之初하니라(20:41)

와 같은 構造에서는 懸吐되지 못한다. 處格懸吐에서도 一切 逆順的 懸吐가 存在하지 않는다. 懸吐된 處格助詞는 意味上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 ① 場所

宣政殿에 左有門下省하고(6:6)

苑中珠簾繡柱에 圍以畫鶴하고(6:9)

荒徑에 生草하야(7:8)

聞交趾에 出丹砂하고(7:5)

神農入本草에 亦不載하니라(15:8)

藍田縣東에 有白鷄谷하니라(7:32)

舍中竹下에 開三徑하고(8:42)

臣子之心에 猶謂宮車ㅣ 晏駕而未出也ㅣ라(6:17)

## ② 典據

- 曲禮에 主佩垂則臣佩委라 ㅎ니라(6:6)      唐制에 昭容은 係九嬪ㅎ니(6:7)  
 小兒는 衛青傳에 衛溫의 次女名이니(6:12)      佛書에 有給孤獨園ㅎ니(7:10)  
 琴曲에 有白雲曲ㅎ니(7:30)

## ③ 時間

- 昔日清平之時에(16:59)      百年之間에(6:7)  
 昔日에(6:9)      上元元년에(6:36)  
 後에 歐血以卒ㅎ니라(6:30)      兵革之際에(6:40)  
 雪夜에 乘輿泛舟ㅎ야(7:2)      三冬에(7:31)  
 歲暮에(7:36)      七月에 起ㅎ고(8:51)  
 入朝에 無車馬ㅣ어 놀(6:19)      昔時元日之會에 鄉人이 羨吾兄弟之歡ㅎ더니(8:43)  
 文王이 將出獵에 卜之 曰……(20:5)      越王句踐이 置膽於坐ㅎ고 坐臥에 嘗膽 曰……(20:52)  
 洗歎危는 舟行에 免欹傾之苦也ㅣ라(20:48)      前日離別에 莫知死生ㅎ다니(8:39)  
 皆言 舞劍器에 回旋疾徐變態ㅎ니라(16:47)

## ④ 原因

- 言 潼關之敗에 兩京이 皆陷ㅎ니(20:26)      此는 言 辟瘴鬼에 伏於幽隙之地ㅎ며(20:37)  
 喻 盜賊之亂에 民生이 困窮也ㅣ라(20:54)      憂愁之極에 如醉而未醒也ㅣ라(6:20)  
 書에 一戎衣에 天下ㅣ大定이라 ㅎ다(6:25)

以上 處格은 場所, 典據, 時間, 原因의 뜻으로 分類할 수 있는데 場所와 典據는 處所의 뜻으로 묶인다. 典據는 註釋文의 性格上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故事의 出處를 表示하기 위하여 쓰인다. 이 典據가 處格으로 나타나면 그 文章은 引用文이 되어 “X에 Y라 ㅎ다”의 構文으로 흔히 나타난다. 場所와 典據는 반드시 體言이 쓰이고 動名詞句는 쓰이지 못한다.

處格助詞가 時間狀況을 나타낼 때는 時間概念을 나타내는 體言에 懸吐되거나 動名詞句에 懸吐된다. 時間 概念을 나타내는 體言은 “時, 朝, 夜, 日, 月, 冬, 年”等 本來부터 時間概念을 갖는 말과 “間, 際, 後, 中……”等 本來 거리나 場所를 뜻하던 말이 轉化한 것이 있다. 이 語辭들은 國語에서도 그대로 借用되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動名詞句가 時間狀況을 뜻할 때는 文脈에 依하여 把握될 수밖에 없다. 懸吐에서는 이것을 確實히 하기 위하여 間或 “……호제”를 쓰고 있다.

諸葛亮이 伐魏호제 據五丈原ㅎ야(6:30)

天子ㅣ坐朝호실제 宮人이 引至殿上ㅎ느니라(6:7)

이 “……호제”는 漢語의 “VP之時”나 “VP之際에 對應되는 것이다.”

“原因”을 뜻하는 것은 處格助詞가 動名詞句나, 動作이나 作用의 뜻을 가진 句에 懸吐된 것이

다. 이 原因表現도 時間概念과 有關한 것으로 時間表現의 處格語는 그 處格語에 나타난 行爲의 時間과 그 處格語가 修飾하는 句에 나타난 時間이 同時的인 것이나 原因表現의 處格語는 그 時間에 先後가 있어 處格語에 나타난 行爲는 時間的으로 先行하고 그의 修飾을 받는 句는 時間的으로 後行하여 結果를 나타내는 것이다. 卽 “越王句踐이……坐臥에 嘗膽曰”은 “坐臥”하는 時間과 “嘗膽하고 曰하는” 行爲가 同時에 일어난 것이다. 卽 “嘗膽”하는 事件은 “坐臥”하는 주어진 時間內에 일어난 것이다. “潼關之敗에 兩京이 皆陷호니”는 “潼關에서 敗한” 時間과 “兩京이 陷落”된 事件이 同時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潼關之敗”가 먼저 일어 났기 때문에 “兩京”이 그 結果로 “皆陷”된 것이다. “盜賊之亂에 民生이 困窮也”라 에서도 “盜賊之亂時에” 民生이 困窮한 것이 아니라 “盜賊之亂”이 먼저 일어나고 그 結果로 “民生이 困窮”한 事實을 表現한 것이다. 時間表現의 處格과 原因表現의 處格은 時間의 同時性和 先後性的 差異가 있을뿐 時間 觀念에 基礎를 둔 表現이기 때문에 同時表現의 處格機能이 擴大되어 原因表現의 處格이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杜謬의 懸吐에선 比較表現의 處格이 極히 드물게 나타난다.<sup>(32)</sup> 漢語에선 比較表現에 있어서도 國語의 處格에 對應하는 “於, 乎” 등이 쓰이고 있다.

所見之物이 異於常時也 | 라(8:31)      愧比身於雙金之珍貴也 | 라(6:14)

其禍 | 基於赤壁이라(20:26)      異乎文帝之賞朱虛 | 니라(20:42)

이와 같이 “於”와 “乎”가 比較表示로 쓰임에도 不拘하고 그에 對應하는 “에/에”가 比較表現에 極히 드물게 나타나는 것은 이 註釋文의 比較表現이 “以, 與” 등에 對應하는 造格의 “一로”로 表現되기 때문에 處格으로 나타날 機會가 적었던 데에 原因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於+NP”가 動詞에 先行할 때에는 “於+NP+에”로 나타나 “於”와 “에”의 重複表現을 보여 준다.

莊子에 恢恢乎其於游刃에 必有餘地라 호다(16:17)

於參軍에 必無猜嫌이라 호니(23:42)

이러한 例는 他文獻에선 “於法에 未得호디(法華1:172), 於物에 有妨호씨(法華1:208), 於千萬億劫에 不聞佛名字호며(法華1:209)” 등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處格과 所有格의 複合인 “엇/엇”의 用例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莊子에 車轍中엇 鮒魚 | 呼莊周호야(8:5)

天子 | 射上林中호야 得鴈足엇 繫帛書호니라(8:47)

이것은 場所를 뜻하는 處格에 所有格이 複合된 것으로 “……에 있는” “……에 所有된”의 뜻이 된다

(32) cf. 洪允杓, 「十五世紀 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第21號, 國語研究會, 1969, pp. 103. 以下 參照 比較基準으로서의 對象을 나타내는 處格은 다음 一例가 發見될 뿐이다. “謂 米一斛에 萬錢也 | 라(24:35)”

言 昔時엔 非今日엔 有寡妻 群盜 | 라(15:22)    金盤玉筋는 賜櫻桃時엔 所用之器라(15:23)  
이것은 時間狀況表示의 處格과 所有格의 複合이다. 이밖엔 主題化添辭와의 複合은 앞에서 言及  
된 바 있다.

## 5. 造 格

杜諺의 造格에 대해서는 이미 別稿에서 論한 바가 있으므로<sup>(33)</sup> 여기서는 그를 要約하고 補充  
한다. 杜諺에서 懸吐된 造格의 “一(으/로)”는 漢語의 “以, 因, 使(令), 與, 自” 등의 虛辭와  
呼應하여 쓰이고 “故”와 結合된 形態로 쓰인다. 이밖의 경우에 “一로”가 쓰인 것은

更僕은 僕夫를 番次로 更代使之也 | 라(7:36)

에서 副詞化接尾辭로 쓰인 것이 發見될 뿐이다.

### 1) “以……로”型

① 言 玄宗이 以文으로 治天下也 | 라(20:21)

② 阮籍이 ·白眼으로 待俗人호고(8:61)

③ 陳平이 以席 ·爲門호니(8:65)

①은 “以……(으)로”型의 典型的인 것으로 “以”와 “로”가 呼應된 것이다. 이 ①은 頻度上으로  
볼 때 ②나 ③보다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②는 “以……로”의 呼應에서 “以”가 省略된 것이고  
③은 그 反對로 “로”가 省略된 것이다. ②와 ③은 “以”나 “로”가 쓰일 수 있는 文構造에서 省  
略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로”가 쓰이지 않는다.

取防戍之火호야 吹以爲獵호고(20:2)

이 경우 “以”다음에는 “之”가 省略된 것인데 “로”를 懸吐할 體言이 없으므로 “로”가 들어갈 자  
리가 없다. “可以, 能以, 得以, 足以, 但以, 因以” 등과 같은 熟語의 다음에서도 이에 準하여  
“로”가 懸吐되지 못한다.

使君之得罪는 以不受汚玷則直之所致也 | 라(8:53)

이 경우는 “以不受汚玷”다음에 “로”가 들어갈 수 있으나 이 때는 이것으로 修飾할 用言이 그 뒤  
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로”가 連結될 말이 없어 懸吐되지 못한다.

此는 言 以打魚而驚動故也 | 라(16:63)

이 경우는 “以……故”의 呼應으로 因果關係를 表現하는 것으로 “故” 다음에 “로”가 懸吐되어야  
하나 그 連結 對象이 쓰이지 않았으므로 “로”는 쓰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로”가 接尾된 體言  
이 없거나, 修飾할 말이 안 쓰였을 때 “로”는 省略된다.

漢語에서 “以” 다음에 時間을 뜻하는 말이 오면 “於”의 뜻으로 解釋되는데

此는 甫 | 以八月에 乘舟下荊州호야(8:40)

(33) 拙稿, 「杜詩諺解」註釋文의 “一로”에 대한 考察 參照

에서 “애”가 쓰인 것은 이러한 데 緣由가 있다. 이밖에

峽人이 以操舟人을 爲長年(前出)

이라와 같이 “을”이 쓰인 것이 있으나 이것은 “以”에 대응하는 懸吐는 아니다.

이 “以……로”의 呼應으로 나타내는 뜻은 “道具, 材料, 資格, 原因, 目的, 比較” 등이 된다.

## 2) “因……로”型

이 呼應型은 極히 드물다.

此는 因昔의 爲莫所侵으로 知君子 | 爲所人의 所掩抑하야 至死不得進也 | 라(16:67)

此는言 甫 | 何因階로 得許生이 乘方便法門하야 引以其匹敵乎오(16:1)

와 같은 例가 發見될 뿐이다.

杜諺의 翻譯에서 “因하야”는 主로 目的格을 支配한다.

비란 사른물 因하야 뒤우고 : 舟楫因人動(8:44)

와 같은 表現이 普遍的이다.

같은 註釋文에서도 國語의 表現에서는 “此篇은 늘근 桃樹 보물 因하야서 感今懷昔之作이니 (15:22)”에서와 같이 目的格을 支配한다.

懸吐에서 이 “因”은 “하야”와도 呼應한다.

此는 甫 | 因步小園하야 見春草而思嚴武也 | 라(6:50)

이것이 目的格支配의 “因”에 대한 懸吐로 생각된다. 이 “因……로”의 呼應은 原因表現의 “以……로” 呼應에서 類推된 것으로 後世에 “因하야”가 目的格支配에서 造格支配로 바뀐 것은 이 因……로”型 懸吐의 發達에 起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時에 王이 因病・不飲하더라(8:12)

甫 | 因避亂・流寓하니(20:26)

에서는 “因”에 對한 懸吐가 省略된 것이다.

今因兵亂而廢故로 甫 | 戀傷……(6:9)

에서는 “以……故”와 같은 뜻으로 “因……故”가 쓰인 것이다. 이 때의 “로”는 “故”에 딸린 懸吐이다.

## 3) “使(令)……로”型

① 肅宗이 使中使로 日送祭物也 | 라(7:29)

帝 令太史로 候望하시니(6:19)

② 此는 言勿疎牧叟하야 使之・斬斷雲梯하야(8:34)

③ 言 不滅寇盜하면・斥侯者로 恃功而驕也 | 리라(20:53)

①은 “使(令)……로”의 呼應型으로 “使(令)”에 대한 典型的인 懸吐이다. 頻度上으로 가장 많 이 쓰였다. “使中使로”의 “中使”는 漢語文法에서는 兼語로 일컬어지는 것으로 “使”의 目的語인

使動者이면서 後行하는 “日送祭物”의 主語가 된다. ②는 “로”가 省略된 것으로 “로”는 “之” 다음에선 省略되는 것이 原則이다. ③은 “使(令)”가 省略된 것이다. 杜諺에서는 使役表現의 “使, 令”에 대하여 “로”以外的 懸吐를 한 것은 發見되지 않는다. 또 그 諺解에서도 “使, 令”이 쓰인 構文은 “……로 하여”로 翻譯되는 것이 原則이고 間或 “로”나 “하여”가 省略된 例는 있어도 이 表現形式을 전혀 無視한 翻譯은 없다. 他文獻에서는 “俾人人이 易曉케 하여(月釋序12)”에서와 같이 當時의 現實言語를 土臺로 한 懸吐가 發見된다.

#### 4) “與……로”型

① 其人이 與天戶侯로 等이라 하니(7:14)

② 判은 普官反하니 與拏·同也]라(21:4)

③ 要는 邀로同하니라(15:24)

①은 “與……로”의 典型的인 呼應型이고 ②는 “로”가 省略된 例, ③은 “與”가 省略된 例이다. 杜諺에서 ②, ③의 例는 極히 드물고 ①의 例가 大部分이다.

漢語에서 “與”는 接續詞와 介詞로 쓰이는데 “로”와 呼應하는 “與”는 介詞에 限한다. 接續詞인 “與”는 國語의 接續助詞 “와/과”에 對應한다. (後述)

이 “與……로”가 表現하는 뜻은 두 事物間의 交互關係를 나타낸다. 即 그 文의 主語와 “與”와 “로” 사이에 들어가는 語辭間의 交互關係로서 相互間의 “同, 異, 等, 差, 好, 惡, 親, 不親, 對立·共存” 등의 交互關係를 나타낸다. 即 上例 ①은 “其人”과 “天戶侯” 間의 交互 關係인 “等差”關係를 表現한 것이다.

杜諺翻譯文에서 介詞 “與”에 대한 翻譯은 “—와”, “—와 다못(하여)”, “—(와)를 다못(하여)”, “—로 다못(하여)”, “—와로”, “—와로 다못(하여)” 등 多樣한데 “與”에 대해서 “로” 單獨으로 對應시켜 翻譯한 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이러한 事實로 보면 이 “與”는 當時의 現實言語로서는 “와/과”에 對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與…로”로만 呼應하는 것은 歷史的인 事實, 即 保守的 懸吐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5) “自……로”型

① 甫] 自蜀으로 至雲安하고(20:1)

② 鳴玉으로 至連山은 言 草書之狀하다(16:20)

①은 “自”와 “로”가 呼應된 例고 ②는 “自”가 省略된 것이다. “로”가 省略된 例는 發見되지 않는다. 漢語에서 “自”는 始發點을 뜻하는 介詞로 흔히 “至”와 呼應한다. 또 “至”의 呼應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意味上 “至”의 뜻이 豫測된다. “自……로”는 空間的인 始發點과 時間的인 始發點의 表現에 두루 쓰인다. 이에 대한 杜諺의 翻譯은 “—로”, “—로서”, “—로브터”, “—브터”, 이나 “—로브터”가 가장 많이 쓰인다.

이 “로”가 始發點을 表示하는 것은 向格의 “로”의 機能에 該當하는 것이다. 筆者는 이 向格

의 “로”는 造格의 “로”와 起源을 달리할 것이라는 假定을 해 본 바가 있다.

以上에서 漢語의 虛辭와 呼應하는 “로”에 대하여 記述하였다. 이밖에 “故로”의 “로”가 있으나 이것은 15世紀에는 格助詞로 볼 수 없는 “로”이므로 여기에 取扱하지 않는다.

여기서 漢語의 虛辭와 “로”의 呼應關係가 成立되게 된 契機에 대한 問題가 提起된다. “以”와 “로”는 이미 新羅時代의 吏讀에서 “以”가 “로”로 읽혔다. 이것은 新羅時代에는 “以”를 自立形態인 實辭로 把握하지 않고 虛辭인 “로”로 解讀했음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古代國語에서 “以”로 支配되는 句에 懸吐를 하였다면 이것은 “로”로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形成된 “以……로”의 呼應은 句의 頭部에 쓰인 “以”와 句末에 쓰인 “로”가 機能上 重複되는 表現인 것이다.

이에 準한다면 “因”, “使”, “與” “自”와 呼應하는 “로”도 그와 같이 說明되어야 할 것이다. “因……로”는 意味上 “以……로”와 通하나 實際로 그 使用例가 적고 “因……하야”의 呼應形이 나오며, 國語에서는 “因”이 “……를 因하야”로 借用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15世紀頃에 “以……로”에 類推되어 形成된 것으로 보아 無理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使(令)……로”나 “與……로”는 漢語의 虛辭와 國語의 “로”가 15世紀에는 意味나 機能上 對應되지 못하는 것이다. “使……로”는 諺解文에서는 “……로 히어”로 翻譯되어 懸吐의 “……로”는 “使”를 修飾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逆順의 懸吐가 된다. 그러나, “……로 히어”는 15世紀 國語로서는 自然스러운 國語表現이 아니다. 여기서 古代國語의 記錄은 우리의 眼目을 열어 준다. 最近에 發見된 永川菁堤碑貞元銘(AD. 798)에 다음과 같은 記錄이 나온다.<sup>(34)</sup>

貞元 十四年 戊寅 四月 十三日 菁堤治記之 謂汝堤傷故 所內使以 見令賜矣……

여기서 “所內使以 見令賜矣”는 “見”의 解讀이 問題가 되나 “所內使로 시키시되(하이시디)” 정도로 풀이된다. 이것은 15世紀의 “……로 히어”와 一致하는 構造로서 이 “……로 히어”가 古代國語에 基礎를 둔 表現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使NP로”의 懸吐는 逆順의 懸吐이며 그 傳統이 매우 오래된 保守性을 띤 懸吐임을 알 수 있다.

“與……로”는 15世紀에는 “와/과”가 “與”에 對應하는 普遍的인 것인데 “로”가 쓰인 것이다. 이것은 “與”에 대한 “로”의 懸吐가 15世紀語를 根據로 해서 成立된 것이 아님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보아 “與……로”와 “使……로”는 같은 契機에서 形成되어 保守的인 懸吐法으로 維持되어 왔던 것으로 생각된다. “自……로”는 “로”가 向格으로 古代國語에서는 造格과 區別되는 形態였을 것이라는 推測이 妥當化된다면 “以……로”와 같은 重複表現으로서 成立되었을 公算이 크다.

이러한 呼應이 形成된 時期는 어떤 確信할 만한 解答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同一時代에 一時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時期的으로 先後가 있었을 것으로 推測된다. 그 중에서도 “因……로

(34) 李基白, 「永川菁堤碑 貞元銘의 考察」, 『考古美術 102號』, 韓國美術史學會, 1969, p. 6 參照

의 呼應은 時期的으로 가장 後代에 形成되었을 것이다. 이 중에서 “使……로”를 除하면 漢語의 虛辭와 國語의 “로”가 單純한 機能上的 重複으로 懸吐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呼應關係로 굳어지면서 “以, 自, 與” 등을 實辭로 把握하게 되어 “—로써, —로부터(로서), —로 다모함야”와 같은 表現法이 생겨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以上 杜諺의 懸吐에 나타나는 格은 主格, 所有格, 目的格, 處格, 造格이 나타난다. 이른바 “共同格”이라 불리는 “와/과”는 다음에 記述되는 바와 같이 並列接續辭로서만 나타난다.

## VII. 漢語의 虛辭와 口訣

이미 앞에서 우리는 漢語의 虛辭와 이에 對應하는 懸吐에 대해서 記述해 왔다. 여기서는 記述되지 않은 몇몇 虛辭에 대하여 考究하기로 한다.

### 1. “與”와 “와/과”

漢語의 介詞 “與”는 “로”가 懸吐되나 接續詞인 “與”는 懸吐되지 않는다. 그 쓰임은

用賈宜與孔子事하야(16:6)

此聯與下聯은 皆叙……(22:18)

言 店與橋 | 空送道中往來之人的 馬蹄而已니라(21:4)

膠漆이 自爲堅이나 不如雷與陳이라 하니라(20:31)

와 같이 體言과 體言을 連結한다.<sup>(35)</sup> 懸吐 “와/과”는

孫雋과 李元禮 | 俱娶桓玄의 女하야놀(7:33)

言 鄭李 | 如汗血馬와 靑田鶴也 | 라(20:7)

楊雄과 司馬相如 | 라(16:18)

三江은 錢塘과 楊子와 吳松也 | 라(21:38)

와 같이 역시 體言과 體言을 連結하는 경우에 쓰인다. 懸吐의 “와/과”는 單純히 體言과 體言의 接續關係만을 表示하고 用言을 限定修飾하는 境遇에는 使用되지 않는다. 이 點 純粹 國語에서 쓰이는 “와/과”와 다르다.

漢語의 接續詞 “與”와 懸吐의 “와/과”는 體言과 體言만을 接續시킨다는 點에서 一致한다. 接續詞 “與”에 대한 懸吐는 發見되지 않으나 纂註分類杜詩의 “與”가 懸吐式註釋文에서 “와/과”로 交替되는 例가 있다.

見元振의 故宅과 薛稷의 書畫也 | 라(杜16:29) ~ 獲都郭之故宅與薛之書畫(纂註16:20)

이것은 漢語의 接續詞 “與”와 國語의 接續助詞 “와/과”가 異言語對應을 하는 것을 直接的으로 보이는 例이다. 이들은 語順과 機能이 一致하므로 重複 表現으로서의 懸吐가 없다.

(35) 漢語文法에서 “與”는 두 事物을 連結하는 連詞(接續詞)로 쓰이고 其他의 關係에 대해서는 關與하지 않는다고 한다. “與”가 介詞로 쓰이는 것은 다른 機能이다. cf. 王力, *op. cit.*, p. 339 以下

## 2. “故”와 “로”

增補東國文獻備考에 肅宗時의 朴世彩는 “然, 故, 而, 則” 등四字에 대한 懸吐에 대해서

雖我國口訣 必當懸於中國句讀之下 然後方爲合義矣 然自四書三經諺解之後 然故而則 等字或斷或連無所准則 至於李滉李珥口訣 然故 必懸訣 而則 二字則必連讀 及至故判書宋凌吉 然故二字 亦與而則同例連讀……<sup>(36)</sup>

이라 하였다. 即, “然, 故”는 退溪와 栗谷의 四書三經에서는 반드시 懸吐를 하였고 “而, 則”에 대해서는 懸吐를 하지 않았다고 한 事實이 注目된다. 杜諺 註釋文에서는 不幸히 接續詞 “然”의 用例가 보이지 않고 그밖의 三字의 用例는 豊富한 편인데 “故”에 대해서는 “로”를 懸吐하고 “則”과 “而”에 대해서는 懸吐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sup>(37)</sup>

法華經諺解에서 “故”에 대한 懸吐는 다음과 같은 3 型으로 要約된다.<sup>(38)</sup>

- ① 多所忘失 故號求名이러니(法1:113)
- ② 若人이 爲佛故로 建立諸形象호되(法1:219)
- ③ 自覺無生 故로 號獨覺이오(法2:95)

이들은 IC 分析에서 “故”를 原因句의 構成素로 본 것이나 結果句의 構成素로 본 것이나에 따라 나눈 것이다. ①은 “故”를 結果句의 構成素로 본 懸吐이고 ②는 原因句의 構成素로 본 懸吐이다. ③은 國語의 獨立語로 把握한 懸吐라 하겠다. 이 중에서 ①은 漢語文法과 一致하는 把握이고 ②는 國語文法에 一致하는 把握인데 杜諺註釋文에서는 ②에 立脚한 懸吐를 하고 ①이나 ②와 같은 懸吐는 發見되지 않는다.

時에 司業蘇源明이 已死故로 云地下 ㄴ이라(21:41)

謂曾無一字奏疏야 以補袞職之闕故로 愧比身於雙金之珍貴也 ㄴ라(6:14)

이것은 “故”를 原因句의 構成素로 보고 “로”를 懸吐한 것이다. “以……故로”로 쓰였으나 이때의 “로”는 “以”와 直接的인 關係가 있는 것은 아니다. 15世紀에 있어서 “故로”의 “로”는 副詞化 接尾辭인 “로”이다. 이것이 起源의으로는 造格助詞 “로”와 一致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지만 15世紀에는 이 둘이 區別되고 있다. “故”에 副詞化 接尾辭 “로”를 懸吐한 것은 “故”를 名詞로 把握한 것이다. “로”는 體言에 接尾되는 副詞化 接尾辭이기 때문이다.

此는 言 以打魚而驚動故也 ㄴ라(16:63)

에서 “故”는 文의 構造上 名詞로 把握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로”도 懸吐될 수 없는 構造이다.

言 少府不來 虛燒燭야 待之而已니라(21:28)

言 但憂干戈之大亂일시 不知行路人之艱難也 ㄴ라(16:50)

(36) 金允經, 『朝鮮文字 及 語學史』, 1946, p. 69 및 崔鉉培, *op.cit.*, p. 99 參照.

(37) 이것은 杜諺의 懸吐가 儒家의 傳統을 反映한다는 事實을 더욱 굳혀 주는 것이다.

(38) 拙稿, 「國語에 미친 中國語 因果關係表現法의 影響」, 『金亨奎博士 頌壽紀念論叢』, 1971. p. 217 參照

는 “故”에 對應하는 “故식, 일식”가 쓰인 것이다. 註釋文의 懸吐 가운데는 纂註分類杜詩의 “故”를 直接 “一리식”에 對應시킨 것이 있다.

地多陂澤故식 謂之澤國이라(杜20:12) ~ 言地多陂澤, 故言澤國(纂註20:8)

그러나 大部分의 “一리식”는 杜詩註釋者의 創作文에서 懸吐된 것이고 纂註의 “故”에 直接 對應하는 例는 흔하지 않다.

杜詩에서 漢語의 “故”는 形態論의으로는 名詞로 把握하여 “로”만을 懸吐하였고 統辯論의으로는 “一리식”와 同一하게 原因句의 構成素로만 把握한 것이 特徵의이다. 이 因果關係表現에 있어 杜詩註釋文에서는

此乃斷薊北賊之右臂也 | 是以로 民賴而安如泰山也 | 라(24:15)

由是로 朔方人 兵氣 | 乃振而民知帝業之再興也 | 니라(24:16)

와 같이 “是以로, 由是로”가 쓰인 것이 있다. 이때의 “로”도 副詞化接尾詞이다.

### 3. 則

漢語文法에서 “則”은 順接 接續詞로 다룬다. 漢語에서 “則”은 上下兩句 중 下句의 頭部에 쓰여 時間的인 先後關係나 條件과 結果 등을 順接시키고 對比關係를 表示하기도 한다.<sup>(39)</sup> 國語에서는 “하면” “이면”이 이에 對應하는 것이나 杜詩에서는 懸吐되는 例가 極히 드물다.

魚 | 登龍門者 | 化爲龍 호니 不登則爲蛟螭而不免燕雀의 欺笑 | 니라(21:10)

天子 | 有孝感則五雲이 見 호니라(6:25)

言 小人則如捐軀 호오 賢才則如上鯢鰲也 | 라(20:21)

과 같다. “則”에 懸吐한 것은 오직 다음 한 例가 發見된다.

言 棧頭 | 見此東津之魚則 은 逃走而遲之也 | 라(16:62)

이것은 “則”을 下句의 頭部에 쓰여 結果를 表示하는 構成素로 보지 않고 上句의 末部에 쓰여 條件을 나타내는 構成素로 把握한 懸吐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故”의 境遇와 같다. 이 때의 “則”은 “故”와 같이 名詞로 把握된 것이다. 이 “則은”은 “면”과 一致하는 것이어서 “則은”의 “은”은 “면”의 “니”와 同一한 添辭이다. 이 “則+은”은 成宗朝 以前의 慣用일 可能性이 크다.

### 4. 而

漢語의 “而”는 順接과 逆接을 兼한 接續이고 한편으로는 介詞의 性格을 띠고 있는 것이다.<sup>(40)</sup>

① 言 廟堂大臣이 佐輔而除亂也 | 라(20:4)

今來此而息其勞也 | 라(20:30)

比白이 辭璘而歸也 | 라(16:7)

代婦人之意而作이니라(8:66)

(39) cf. 許世英編著, 『常用虛字用法淺釋』, 臺北, 復興書局, 1969, p. 83 以下

(40) cf. 王力, *op. cit.*, p. 337 以下

② 如人事之初盛而終衰也 | 라(16:73)      此는 甫 | 羨李舟而自愧二子之不如 | 라(8:19)

言 薛璉 | 前在省部而今在荊南也 | 라(16:13)

以上 ①은 順接이고 ②는 逆接의 例이다. 다음 例들은 介詞 或은 副詞의 性格을 띤 것이다.

言 士有死於戰者 | 以白骨而歸時에 (16:51)      天子 | 自竹宮而望拜하시니라(15:34)

言 人之神이 自虛中而出故로(6:28)

이 경우의 “而”는 先行句의 “以”나 “自”와 呼應하는 것으로서 “—로”를 “而”에 代置시키거나 “而”의 앞이나 뒤에 懸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例들도 介詞의 性格을 띤 것들이다.

今因飲酒歡樂而欲忘妻子也 | 라(22:4)

此는 因打魚之暴而嘆世亂에 賢人君子 | 遁藏也 | 라(16:63)

에서 “而”는 先行句의 “因”과 呼應되는 것으로서 “로”나 “—하야”를 “而”와 代置할 수 있다.

謂趙公이 持此刀하야 爲天子 而治亂人也 | 라(16:55)

에서는 “爲”와 呼應되는 것으로서 “하야”를 “而”와 代置할 수 있다.

豈知我의 雖在官而有隱逸之興也 | 리오(6:16)

正士 | 雖周防 而讒者 | 必中傷之니(20:19)

에서의 “而”는 “雖”와 呼應하는 것으로서 “—이(호)나”나 “—(이라)도”가 “而”와 代置할 수 있는 것이다.

杜諺에서 “而”에 대한 懸吐는 一切 하지 않고 있다. 間或 纂註의 “而”에 對해서 다음과 같이 代置한 것이 나타난다.

言 赴落鎮入宴會하야 感傷所聞之曲也 | 라(杜20:3) ~ 赴落候之宴會 而感傷所聞之曲也(纂註 20:2)

甫 | 言 不能隨翰林之飛騰이오 止餘泣於聚螢讀書耳라(杜21:9) ~ 言 我不能隨張翰林之高 飛而止餘泣於聚螢爾(纂註21:7)

甫 | 獻三大禮賦하야는 帝奇之하야(杜21:9) ~ 公獻三賦 而帝奇之(纂註21:8)

에서 漢語(纂註)의 “而”에 대하여 懸吐 “—하야”, “—이오”, “—하야는” 등으로 代置한 例가 나타난다. “雖……而”에 대하여

甫 | 衰老하야 拙於逢迎賓客이언마론 與珣則結契 | 饒多也 | 라(杜20:46) ~ 言 雖衰老 拙於 逢迎 而與盧 所以契托饒縱也(20:30)

와 같이 “—이언마론”이 對應되는 것이 나온다.

以上 “—하야, —이오, —하야는, —이언마론” 등은 “而”를 除去하지 않고 그 앞에 懸吐할 수 있는 것들이다.<sup>(41)</sup>

(41) 法華經疏解에서는 이 “而” 앞에서도 이를 助詞나 語尾가 懸吐되고 있다.

蓋有大智하야 聞佛知見하고 而助智以悲하야(法1:42) 是時에 天雨…摩訶曼殊沙華하야 而散佛上과(法1:56)  
務在疏明一大事佛知見이언마론 而未敢自許하노니(法1:8)

## 5. “亦, 猶, 尙”과 “一도(두)”

漢語의 副詞 “亦, 猶, 尙”에 대해서 國語의 “一도”, “一(이)라도(두)”가 對應한다. 이 “一도”가 懸吐될 때는 漢語의 이들 副詞들에 語順上 先行한다.

此는言 破船도 可掘而修 | 며 新船도 亦可得이언마론(6:45)

時或用戲라 두 亦不至於亂也 | 니라(6:12)

彼之詩도 未見이오 甫之書도 亦未奇也 | 라(20:36)

魑魅도 猶知此人之來而以爲喜히니(21:44)

言 岸谷도 尙有變易이니(6:43)

漢語의 “亦, 猶, 尙”에 대한 懸吐는 隨意的이어서 그에 對應하는 “一도”가 懸吐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言 甫 | 去後에 此室이 亦如王祭宅의 在峴山下也 | 라(7:4)

神農入 本草에 亦不載히니라(15:8)

言 前日所設之樽櫛이 今猶在也 | 라(15:12)

言 幽燕遼海에 尙有亂也 | 라(20:35)~

이와 反對로 文脈에 依하여 漢語의 이 副詞들에 呼應하지 않고 “一도”가 使用되기도 한다.

蘋藻之菜도 可羞於王公이언마론(16:64)

其詩 | 纖毫도 皆妙而可矜誇也 | 니라(20:23)

杜諺의 이 註釋文에 該當하는 纂註의 註釋文에도 이 例文의 “一도”에 對應하는 漢語의 副詞들은 使用되지 않았다.

## 6. “乃”와 “一아”

漢語의 順接 接續詞 “乃”는 下句의 頭部에 쓰여 國語로서는 “겨우, 비로소, 이에, 즉” 등의 뜻을 갖는 것이다. 15世紀 國語에서 이 “乃”에 對應하는 것은 添辯 “一아”이다. 杜諺에서 “一아”가 “乃”에 直接 懸吐된 例는 發見되지 않으나 他 文獻에선 흔히 發見되는 것이다.

終見機熟히시고아 乃思願實히시니라(法1:242)

如是之人에아 乃可爲說이며(法2:170)

이 “一아”는 “乃”에 先行하여 懸吐된다. 杜諺에서 이 “乃”와 “一아”의 쓰임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許生이 居五臺히야 學佛而行業이 精白이어늘 乃出也 | 라(16:1)

甫 | 戀傷而其地 | 乃入愁思之中也 | 라(6:9)

司戶 | 乃小吏也 | 라(21:38)

② 霜降之後에아 禾稼 | 成熟히니라(7:35)

酬報嚴武의 知我之義分然後에사 終老山林也 | 라(7:8)

이와 같이 “乃”와 “—사”는 各各 分離되어 쓰였으나 “乃”에 대해서 “—사”가 懸吐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sup>(42)</sup> 纂註의 “乃”를 杜諺에서 “—사”로 代替시킨 例가 發見된다.

要當悟空達本이 如得魚忘筌하야사 斯爲善學佛也 | 니라(杜20:14)~要當悟空達本 如得魚而忘筌 斯乃爲善學道也(纂註20:9)

光州板 千字文에는 “乃”의 訓과 音を “사 내”로 읽고 있음을 보는데 이것은 漢語의 “乃”와 國語의 “사(사)”를 일찍부터 對應시켜 왔음을 보이는 것이다.

## 7. “若(如)과 “一면, 一거든”

漢語의 “若”은 上句의 頭部에 쓰여 假定表現을 하는 接續詞이다. 이에 對應하는 國語의 虛辭는 주로 “一면”과 “一거든”이다.<sup>(43)</sup> 杜諺에서는 “若”에 대하여 “一면”이 懸吐된 例는 比較的 많이 나타나나 “一거든”이 懸吐된 例는 極히 드물어 “書에 若考 | 作室이어든……(16:9)”이 發見될 뿐이다 “若……면”의 例는 다음과 같다.

村路 | 荒僻하니 若有來訪之人이면 必使之迷失也 | 니라(7:16)

此는 言 流離困走中에 常有失身之懼하니 若幽而不正이면 非君子之幽也 | 라(6:37)

“若”에 대하여 “一면”이 懸吐되는 것은 거의 必須의이다. “若”以外에 “一면”이 呼應하여 懸吐되는 것은 “儻或”이 發見된다.

言 李舟 | 儻或旋返遲緩이면 無以慰衰疾宿昔交友之望也 | 라(8:21)

“一면”과 “一거든”은 文脈에 따라 呼應하는 漢語의 接續詞가 없이도 懸吐된다.

鮑照 | 見薛華하면 當愁絕而倒地也 | 라(15:39)

曰 不遇盤根錯節이면 何以別利器리오하니(21:2)

不成潮는 言水淺이니 峽人이 春水 | 生이어든 行船하느니라(20:46)

蚊虻이 呌膚 | 어든 倦於撲滅也 | 라(16:58)

등인데 이들은 假定表現 以外에 條件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 8. “雖”와 “—이나(하나), 一도”

漢語에서 “容認(讓步)”을 表現하는 接續詞 “雖”는 上句의 主語와 敘述語 사이에 주로 쓰인다 杜諺에서는 “—이나(하나), 一도, 一이라도(하야도)”가 이에 呼應하여 上句의 末에 쓰인다.<sup>(44)</sup>

雖權州之治나 美政이 多〇〇也 | 라(6:35) 瑠 | 雖在長沙 | 나 非如諠之選謫也 | 라(20:47)

雖有區區之意나 亦已踈矣라하니(7:13)

(42) 法華經諺解에서는 “乃” 앞에 “—사”가 懸吐된 것이 흔히 發見된다.

(43) cf. 拙稿, “하다가”攷.

(44) cf. 拙稿, 「十五世紀 文獻에 나타난 中國語의 文法의 影響과 呼應關係形成에 대한 考察」, 漢陽大 論文集, 1970.

雖未極貴<sup>1</sup>나 乃是宗室也<sup>1</sup>니라(7:34)      長松이 雖遭霹靂<sup>1</sup>나 猶得再生<sup>1</sup>하느니라(8:53)

言 蔬雖不多<sup>1</sup>나 爲客小摘<sup>1</sup>하느니라(22:11)

論語에 雖蠻貊之邦이라도 行矣라 하느니라(8:63)

雖霹靂之威도 亦爲之催沮也<sup>1</sup>라(16:2)

“雖”에 대하여 “나”나 “도”가 懸吐되는 것은 거의 必須의이나 下句의 頭部에 “而”가 올 때는 亦是 懸吐되지 않는다.

太傅는 謝安이니 雖富貴 而放情丘壑<sup>1</sup>하느니라 以比嚴鄭公하느니라(16:43)

下句의 頭部에 “而” 以外에 “乃, 亦, 猶” 등이 올 때는 “나”나 “도”가 懸吐된다. “而”가 올 때 懸吐되지 않는 것은 意識의으로 懸吐를 避한 것이다.

#### 9. “但, 唯, 特, 徒, 空, 虛……”

漢語의 “但 唯……” 등은 國語의 “뿐, ㄹ” 등의 虛辭에 對應하는 것이다. 杜諺에서는 이 “但 唯……” 등에 “뿐, ㄹ”이 懸吐되지 않지만 “而已, 耳”가 呼應하는 例가 흔히 나타난다. 漢語의 “但, 唯……” 등은 大體로 句節의 頭部에 位置하고 “而已, 耳” 등은 國語의 “뿐, ㄹ”과 같은 位置인 句節末에 쓰인다.

但從嚴公耳니라(21:3)

唯有詩篇釣舟而已라(15:24)

豈特曾與崔로 談論이 如決江河而已리오(20:50)

徒有與白으로 隱居之約而已로다(21:43)

空送道中往來之人의 馬蹄而已니라(21:4)

虛燒燭하야 待之而已니라(21:28)

漢語에서 “但 唯……” 등에 “耳, 而已”가 呼應하는 것은 必須의인 것은 아니어서 이들이 呼應하지 않고 個別的으로 使用되는 경우도 흔히 있으나 杜諺에선 이 呼應이 比較的 많은 편이다.

“但”에 대해서

當兵革之際하야 何暇晏然宴會리오마련 但死亡이 迫近하식 不能罷也<sup>1</sup>니라(7:25)

此는 言 不酤酒하곡 但從嚴公飲耳니라(21:3)

과 같이 “—마련”, “(하)곡” 등이 懸吐된 例가 있으나 規則的인 것은 되지 못한다.

以上에서 漢語의 虛辭와 對應하는 國語의 虛辭(懸吐)들을 比較해 보았다. 이 중에서 漢語의 虛辭들은 上下句로 나뉘는 複句에서 上句의 頭部에 쓰이는 것과 下句의 頭部에 쓰이는 것이 있다. 그러나 國語의 虛辭는 上句의 末에 接尾되는 形式으로만 쓰인다. 이에 따라 漢語의 虛辭와 國語의 懸吐가 呼應하는 樣式을 語順에 따라 分類하면 다음과 같다. 漢語의 虛辭를 Ch, 國語의 虛辭를 Ko로 表示한다.

① ……………Ko, Ch……………

……—도, 亦(猶, 尙)……

……—아, 乃……

이것은 漢語의 虛辭가 下句의 頭部에 쓰일 때 나타나는 形式이다.

② .....Ch+Ko, .....

.....故로, .....

.....則은, .....

이것은 漢語의 虛辭가 本來는 下句의 頭部에 쓰이는 것인데 IC 分析에서 그에 對應하는 國語의 虛辭가 上句의 末部에 쓰이는 現象에 牽引되어 漢語의 虛辭를 上句의 構成素로 보아 그 末部에 놓고 懸吐한 것이다. 이 때 漢語의 接續詞 “故”나 “則”은 名詞로 認識하고 懸吐한 것이다.

③ Ch.....Ko, .....

若.....(若)면, .....

雖.....(雖)나, .....

이것은 漢語의 虛辭가 上句의 頭部에 쓰이는 것이다. 이밖에 “以(因, 與, 自, 使).....로”도 여기에 드는 것이다. “但.....而已”도 “而已”를 “뿐, ㅜ릅”과 對應시켜 보면 이 範疇에 든다.

杜諺에서 一切 懸吐되지 않은 “而”는 懸吐된다면 ①의 形式에 따를 것이다.

## VIII. 結 論

漢語가 國語에 미친 影響은 直接 口語를 통해서 미친 影響보다도 文語를 통해서 미친 影響이 더욱 컸다. 漢語의 文語인 漢文은 일찍부터 國語化의 길을 밟아 왔다. 그 國語化된 것 중의 하나가 懸吐된 漢文이다. 懸吐는 本來 漢文의 學習과 正確한 理解를 위하여 그에 대한 國語的인 解釋을 基準으로 原文自體에 加減 變改가 없이 國語의 文法的인 虛辭를 補充한 것이다. 이것은 國語가 漢文을 干涉한 結果가 된다. 이런 意味에서 懸吐된 漢文은 純粹한 漢語로서의 文語가 아니라 國語에 보다 同化된 文語이고 이것이 오히려 國語를 干涉하기 容易한 文語로 登場한 것이다. 15世紀의 諺解는 이 懸吐를 反映한다. 그러나 그것이 程度의 差는 있지만 自然스러운 國語를 反映한 것이 못됨은 周知의 事實이다. 卽 懸吐된 漢文의 干涉을 받은 것이다.

懸吐는 古代國語時代부터 制定되었던 것으로 推測되고 있다. 그러나 同一時代 同一人의 것이라도 懸吐는 必然的으로 變異(variation)를 隨伴할 運命에 있다. 異言語對應(bilingual identification)을 基礎로 한 懸吐는 같은 深層構造를 把握한 懸吐라 하더라도 表現의 細密度와 表現方法에 따라 變異가 생겨 나게 마련이다. 그러나 懸吐가 制定되면 一種의 懸吐의 規則이 樹立된다. 이 規則은 時代에 따라 現實言語에 맞도록 修正된다 하더라도 保守性을 띤다. 이 懸吐는 麗末, 鮮初에 相當한 修正이 있었을 것으로 믿어지나 그 修正은 傳統的인 懸吐의 規則을 反映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懸吐는 漢文의 句讀를 決定한다. 이 句讀의 決定은 漢語文法에 一致하는 것만은 아니다. 國語的인 膠着性의 特質이 여기 加해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또 懸吐는 漢語의 一定한 虛辭에 대하여 一定한 國語의 虛辭를 對應시킨다. 이것은 漢語의 虛辭의 機能과 國語虛辭의 機能이 部分的으로 對應하는 異言語對應에 基礎를 둔 것이므로 國語虛辭의 機能에 變質을 招來할 素地가 된다.

15世紀 諺解文獻의 懸吐를 보면 佛經諺解類의 懸吐와 杜詩諺解의 懸吐에는 表現 技巧上의 差異 以上の 差가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이 懸吐는 世祖가 參與한 佛經諺解類나 其他 諺解를 前提로 한 懸吐와 系統이 다르고 傳統의인 儒家의 懸吐와 系統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杜諺의 懸吐가 보다더 保守性을 띠는 것으로 解釋되는 것이다.

한편 杜諺 註釋文은 주어진 漢文을 解讀하기 위해서 懸吐한 文章이 아니라 懸吐한 漢文을 學習해서 第三의 言語能力을 얻은 註釋者가 漢語文法에 대해서 徹底한 拘碍를 받지 않고 創作한 文章이기 때문에 懸吐를 消去하면 漢文으로서의 文脈이 通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두 言語가 混成된 結果이다.

杜諺의 註釋文의 懸吐는 “與……로”와 같이 部分的으로는 保守性을 띠고 있어도 全般的으로는 15世紀語의 文法을 反映하고 있다. 特히 現代 國語에선 區別되지 않는 疑問法語尾의 “오, 고”系列과 “아/어”系列의 區別이나 所有格의 “스”과 “이/의”의 區別 使用을 보면 쉽게 理解된다. 그러나 漢文의 解釋에서 나와야 할 國語의 모든 虛辭가 懸吐에 反映되지 않는다. 特히 冠形形 語尾와 動名詞語尾, 先語末 語尾는 制限된 數만이 나타난다. 그뿐 아니라 그 用法이 隨意的이어서 그들이 나타날 環境과 나타날 수 없는 環境을 豫測하기 어렵다. 連結語尾와 副動詞語尾도 大體로 이 點은 一致한다. 叙法에 있어서도 文의 終結形에 있어서는 說明, 疑問, 命令, 感嘆만이 나타난다. 說明法을 除外한 疑問, 命令, 感嘆은 引用文 속에서 나타난다. 이것은 註釋上의 特質일 것이다.

說明法은 “—이라”系와 “—하다”系로 大分된다. “—이라”系는 句讀의 確認에서 一次的으로 產出되는 口訣이고 “—하다”系는 句讀를 確認한 다음 二次的으로 “VP”에 대한 確認에서 產出되는 것이다. 大體로 “—이라”는 主題文에서 使用되고 “—하다”系는 行爲文에서 使用되는 傾向이 있다.

杜諺 懸吐에 나타나는 格은 主格, 所有格, 目的格, 處格, 造格이다. 이론마 共同格이라 불리지는 “와/과”는 體言과 體言의 並列 接續에서만 나타난다. 格의 懸吐는 반드시 順行的 懸吐이고 逆順的 懸吐는 “使……로”의 例만이 發見되는데 이것은 懸吐의 保守性을 보여 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漢語의 虛辭와 國語의 虛辭는 다음과 같이 異言語對應을 하는 것으로 把握되었다.

- |                       |                              |
|-----------------------|------------------------------|
| 1. 也 ~ -이라            | 2. 疑問辭 ~ -오/고                |
| 3. 之 ~ -스, -이/의       | 4. 於(于) ~ -에                 |
| 5. 以, 自, 因, 與 ~ -로    | 6. 與(接續詞) ~ -와/과             |
| 7. 故 ~ -(故)리시         | 8. 而 ~ -이오, -하야, -하야놀, -이언마론 |
| 9. 亦, 猶, 尙 ~ -도       | 10. 乃 ~ -아                   |
| 11. 若 ~ -(若)면, -(若)거든 | 12. 雖 ~ -(若)나, -도            |

이 중에선 相互 呼應關係를 形成한 것이 있다. 이 呼應關係를 語順에 따라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다.

- |                      |                     |
|----------------------|---------------------|
| 1. ……也+ㅣ라,           | 2. 疑問辭+……+一고(오)     |
| 3. ……於+NP+에+VP       | 4. ……-도, +亦(猶, 尙)…… |
| ……以(自, 因, 與)+NP+로+VP | ……-아, +乃……          |
| 5. 若+……+一면(거든)……     |                     |
| 雖+……+一나(도)……         |                     |

“使”는 “로”와 呼應하여 “使+NP+로+VP”로 나타나 逆順的 懸吐를 보이고, “故”는 “로”가 接尾되어 “故로”로 쓰인다. “則”에도 添辭 “은”이 接尾된 例가 있다. 이것은 아마도 成宗朝 以前에 있었던 慣用일 것으로 생각된다. “故”와 “則”은 漢語에선 後行句의 頭部에 쓰이나 懸吐된 漢文에선 先行句의 末部에 쓰인 것이다.

이 懸吐는 諺解에 反映되고 있으므로 懸吐에 對應되는 諺解를 檢討하면 漢語가 國語에 미치는 文法的인 干涉을 把握할 수 있을 것이다.

## A Grammatical Investigation of Annotating Sentences in *Tu-si-en-hae* (*The Korean Translation of Tu Fu Poetry*)

Nam, Poong-hyun

The Chinese language has influenced the Korean language through its literary language more than through its spoken language. The literary language of Chinese in Korea called *hanmun* (Chinese composition) has thus begun the Koreanization process early in its history. One form of this Koreanized Chinese written language is the Chinese composition supplemented with Korean particles.

Semantically empty Korean particles were inserted into Chinese sentences without changing their original forms, according to Korean interpretations of the sentences, in order to help learning and understanding Chinese compositions. Thus, this process (i.e., the inserting of Korean particles into Chinese sentences) naturally brought about the interference of Korean with Chinese writings. In this sense, the Chinese composition with Korean particles may not be regarded as the authentic Chinese literary language; but, being a literary language closely related to Korean, it could easily influence Korean literary language. *Tu-si-en-hae* (杜詩諺解) shows these inserted particles in the translated Korean sentences. As we know, however, it did not reflect the natural form of the Korean language, although this is a matter of degree. In other words, the translated portion of the book had affected by the Chinese composition with Korean particles.

It is generally assumed that the particle insertion was adopted from the Old Korean period; however, considerable variations could not be avoided in the insertion process even by the same person. Although the particle insertion was based on the correct bilingual identification of the deep structures of the sentences under consideration, the variations could not be entirely eliminated due to the delicacy of expressions and the method of representation. Nevertheless, there are certain rules observed in the particle insertion process. These rules generally showed conservative trends, even if they were subject to revision according to the contemporary styles of the language. It is believed

that the particle insertion obeyed the traditional insertion rules although it had undergone considerable revisions from the end of the Koryo dynasty to the beginning of the Yi dynasty.

The particle insertion rules define the punctuation marks in Chinese compositions. The punctuation marks thus defined not only agree with the system of Chinese grammar, but also show the agglutinative characteristic of the Korean language. Furthermore, certain Chinese empty elements were allowed to be substituted by Korean particles. This substitution phenomenon provided the condition which might influence the grammatical functions of Korean particles, because it was based on the bilingual identification of Chinese particles with similarly functioning Korean particles.

If we compare the particle insertion system in 15th century books, that is, Korean translations of Buddhist sutras with that in *Tu-si-en-hae*, we would find their insertion processes differ not simply in their representation techniques. The particle insertion of the latter seems to be similar to that appearing in traditional Confucian literature, differing from that in other translated books such as Korean translations of Buddhist sutras undertaken by King Se-jo. Therefore, it may be said that the particle insertion method used in *Tu-si-en-hae* contains more conservative aspects than others.

From time to time the annotating sentences in *Tu-si-en-hae* do not make sense as Chinese sentences when their inserted particles eliminated, because they are not identical with Chinese sentences supplemented with Korean particles for their easy interpretations, and because they are the sentences created, independently of the Chinese grammatical influence, by the annotators who acquired another language ability by studying the Chinese composition with Korean particles. This phenomenon mainly resulted from the substitution of Chinese empty words with corresponding Korean particles.

The particle insertion method employed in the annotating sentences of *Tu-si-en-hae* generally shows the grammatical system of 15th century Korean, even though it contains some conservative features as in "lo". In particular, it reveal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o/ko" type and "a/e" type in interrogative sentences, and between the "s" type and the "ei/ui" type in the genitive case, which are not distinct in Modern Korean. We have to bear in mind, however, that not all Korean particles

appear as the particles of Chinese compositions. Not only are limited number of attributive endings, gerundive endings, and prefinal endings used in it, but also the environments in which these particles may appear are unpredictable because they are not obligatory elements. This is also true in the case of connective endings and converbal endings. As for the mood system, there appear only four types of sentence endings: expository, interrogative, imperative, and exclamatory. Only three types of sentence endings, excluding the expository sentence ending, are used in quoted sentences, which seems to be a characteristic of annotation.

The expository mood is expressed with the “-ila” type and “-heta” type. The former type is used as a primary particle inserted in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a punctuation mark, but the latter type is inserted as a secondary particle in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of a “VP” (verb phrase). Generally, the “-ila” type tends to be used in a thematic sentence, whereas the “-heta” type tends to be used in an actor-action sentence.

As for the cases used in the particles of *Tu-si-en-hae*, there appear five cases: subjective (nominative), genitive, objective, locative and instrumental. The so-called comitative case “-wa/kwa” appears only as a coordinate conjunction of substantives. Except in “使+NP+-lo” the case markers are always affixed progressively, but never regressively.

The following list is the bilingual identification of Chinese particles with corresponding Korean particles in annotating sentences of *Tu-si-en-hae*:

1. 也 : -ila
2. Chinese interrogative: -o/ko
3. 之 : -s, -ei/ui
4. 於, 于 : -ai/ei
5. 與(Conjunction): -wa/kwa
6. 以, 因, 與, 使: -lo
7. 故 : -(hə)lsəi
8. 而 : -io, həya, həyanəl, -ienmalən
9. 亦, 猶, 尚 : -to
10. 乃 : -za
11. 若 : -myen, -ketun
12. 雖 : -na, -to

Some of the elements listed above show mutual agreement relations: they are listed in terms of their word order as follows:

1. ....也 + -ila.
2. Chinese interrogative +.....+ -o/ko.
3. ....於 + NP + -ai/ei+ VP.....  
     .....以(因, 與, 自) + NP + -lo + VP.....
4. ....-to + 亦(猶, 尙).....  
     .....-za + 乃.....
5. 若 +..... + -myen(-ketun).....  
     雖 +.....+ -na(-to).....

“使(令)” agrees with “-lo” as in “使 + NP + -lo + VP”, in which “-lo” was inserted regressively. “故” is used with the “-lo” suffix as in “故+lo”. There is also an instance where the particle “-en” is suffixed to “則”. In the Chinese language, “故” and “則” are used at the head of a subsequent clause, but in *Tu-si-en-hae* they are used at the end of a precedent clause.